

# 삼척 오십천 사람들의 삶과 지혜

전제훈<sup>1)</sup>

- I. 글을 들어가며
- II. 오십천 자연환경
- III. 오십천 인문환경
- IV. 오십천 철학환경
- V. 오십천 생활환경
- VI. 오십천 사람기질
- VII. 글을 나오며

## I. 글을 들어가며

오십천(五十川)<sup>2)</sup>은 삼척지역을 가로질러 흐른다. 그래서 삼척사람들은 오십천을 젓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척지역은 산, 바다, 강이 고루 갖추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삼척사람들은 오십천을 척박한 삶의 현실(現實)에서 황금 같은 초현실(超現實) 세계로 들어가는 지혜를 주는 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연금술(鍊金術)에 있어, 「현자(賢者)의 돌」과 같은 강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십천은 삼척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을 형성하는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십천은 삼척 사유문화(思惟文化)의 핵심(核心) 생성지(生成地)라고 볼 수 있다.

삼척사람들의 오십천에 대한 사유구조(思惟構造)는 「오십정산(五十井山)」, 즉 순수우리말로 「원우금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구조는 「지혜(知慧)와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십(五十)」은 순수 우리말로 「원」이며, 숫자로는 50이다. 오십은 역학(易學)에서 온전 수인 100의 중간수로 「중심」을 나타낸다. 「우금」은 우물[정井]으로 마르지 않음 영원성(永遠性)을 나타내고 있다. 「메[되]」는 「산(山)」으로 심산유곡(深山幽谷)을 따라서 하천이 형성된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십천은 단군정전법(檀君井田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군정전법에 담긴 의미는 공평분배(公平分配)의 중심사상(中心思想)과 중용(中庸)의 사유문화(思惟文化)라고 할 수 있다.

오십천은 삼척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 질러 흘러내리는 중심 강이다. 따라서 그 자연환경(自然環境)에 따라 삼척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생각 등 인문환경(人文環境)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1) 철학박사,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학과 조교수(산학협력 중점),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환동해학회 연구위원  
2) 오십천은 삼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지만 한강과 낙동강 오십천이 발원지를 같이하고 있어 필자는 오십천을 하천 보다는 「강」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그래야만 오십천은 한강, 낙동강과 함께 삼대강으로 같은 분수령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삼척 죽서루 오십천 변에 「가람」 마을이 있다. 이 「가람」은 「강」의 고어(古語)로 오십천을 하천보다 「강」으로 해석하는 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있다.

## II. 오십천 자연환경

### 1) 오십천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강인가?

오십천(五十川)은 강원도 삼척시를 북동쪽으로 흘러 동해바다로 흘러드는 강이다. 오십천은 대표적인 감입곡류(嵌入曲流) 강이다. 그 길이 59.5킬로미터, 유역면적 294평방킬로미터이다.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白屏山) 북동쪽 계곡에서 발원해 북서쪽으로 흐른다. 백병산의 높이는 1259미터이다. 오십천은 오십장폭포[미인폭포]를 이룬다. 오십천은 이곳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에서 북동쪽으로 물길을 바꾼다. 도계읍, 신기면, 미로면을 지난다. 삼척시가지 마평동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이곳 오분동 고성산(古城山) 북쪽에서 바다[동해(東海)]로 흘러든다. 고성산의 높이는 97미터이다.<sup>3)</sup>

오십천이란 강 이름 유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오십천은 삼척도호부에서 물의 근원까지 47번을 건너야 해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십천 중류 유역에는 석회암층(石灰巖層)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카르스트(karst) 지형이 발달하였다. 환선굴, 관음굴, 제암풍혈, 양터목세굴, 큰재세굴, 덕발세굴 등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 동굴은 대이리동굴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삼척지역은 이밖에도 연화상굴, 연화하굴 등 많은 석회동굴이 있다. 삼척시 신기면에 있는 대이리동굴지대는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다.<sup>4)</sup>

오십천은 동해안에서 연어가 돌아오는 강으로 유명하다. 오십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는 은어, 송어, 버들개, 검정망둑을 비롯해 11종의 담수어(淡水魚)가 있다. 그러나 이들 어류는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하천오염에 따라 그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강 하류지역인 삼척시가지 오십천 변에는 관동팔경(關東八景) 가운데 하나인 삼척죽서루(三陟竹西樓)가 있다. 관동팔경 중 제일루(第一樓)인 삼척 죽서루는 보물 2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십천 유역 내에 실직군왕릉(悉直郡王陵)이 있다. 이 실직군왕릉은 강원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와 대한평수토찬비(大韓平水土讚碑)가 있다. 이 비석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척향교(三陟鄉校)가 있다. 이 향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삼장사와 감로사 등 사찰이 있다.<sup>5)</sup>

### 2) 오십천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나?

삼척 중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오십천에는 17과 42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삼척마음천에 31종, 가곡천에 25종에 비하여 많은 종류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어류학회에 보고되고 있다.<sup>6)</sup>

오십천에 담수어 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나? 이는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오십천 상류와 태백시 통동 낙동강 상류의 하천 쟁탈전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십천 쪽으로 낙동강 상류가 옮겨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오십천(五十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904쪽

4) (삼척군, 『三陟郡誌』, 삼척군, 1988, 71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46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오십천(五十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904쪽

6) 삼척시, 『三陟市誌』 제2편 지리,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96 - 197쪽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십천은 낙동강 상류의 어류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통의 발달로 피라미, 꼬리, 미유기, 통가리는 영서지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sup>7)</sup>

오십천에는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나. 오십천은 연어를 비롯해 송어, 산천어가 서식하고 있다. 은어와 황어, 버들개, 연준모치, 파라미, 꼬리, 새미, 쉬리, 돌고기, 잉어, 붕어가 살고 있다. 또 미꾸리, 왕종개, 참종개, 북방종개, 새코미꾸리, 종개, 쌀미꾸리, 자가사리, 메기, 미유기가 서식하고 있다. 학꽂치, 송사리, 큰가시고기, 가물치, 독종개, 농어가 살고 있다. 이밖에 농어, 꺾지, 송어, 가송어, 동사리, 검정망둑, 갈문망둑, 밀어, 줄망둑, 흰발망둑, 꼭저구, 날망둑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 3) 오십천에 산다는 「뿌구리」는 어떤 물고기인가?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출신으로 강원도청 농정국장을 지낸 이경진 씨. 그는 그의 저서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sup>9)</sup>에서 「뿌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뿌구리」는 『넷가에 사는 민물고기의 일종으로 추어탕용으로 쓴다. [뿌구리는] 맑은 물에 사는데, 꼭저구를 타나내는 듯하다.』<sup>10)</sup> 그는 「뿌구리」에 대한 삼척사투리 사용례로 『뿌구리 탕이 미꾸라지 탕보다 맛이 좋다와(좋습니까)?』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sup>11)</sup>

오십천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망둥어과의 「꼭저구」가 살고 있다. 이 「꼭저구」는 오십천을 비롯해 삼척지역 내 마음천과 가곡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뿌구리」는 「꼭저구」의 삼척사투리라고 할 수 있다.

### 4) 오십천에 산다는 「똥꾸」는 어떤 물고기인가?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에서는 「똥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경진은 그의 저서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sup>13)</sup>에서 「똥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똥꾸]는 동해안지방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의 넷가나 호수에 서식하는 똥똥한 모양의 민물고기를 말한다. 크기는 7 - 10센티미터 정도이며 어두운 갈색을 띄거나 자색을 띤다. 껍이 없어 낚시에 잘 물린다. 「똥꾸」는 일본말로서 「똥꼬」라고도 하며 표준말은 「검정망둑」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정망둑」은 오십천 특산민물고기이다. 이경진은 그의 책에서 「똥꼬」에 대한 활용사례로는 『봄에 똥꾸 낚을 때는 논골뱅이[우렁이] 메기[미끼]를 다는데 똥꾸는 껍대加里[피]가 없어서[없어서] 잘 물린다.』라고 하였다.

### 5) 오십천 주변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나?

오십천 변은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져 틈과 구멍, 동굴이 많다. 이들 틈과 구멍, 동굴은 새들이 서식처로는 안성맞춤이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등지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과 오십천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에 대해서는 1997년 삼척시청이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4)</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조류(鳥類)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

7) 삼척시, 『三陟市誌』 제2편 지리,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96 - 197쪽

8) 삼척시, 『三陟市誌』 제2편 지리,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96 - 197쪽

9)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10)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뿌구리, 藝文社, 2004, 195쪽

11)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뿌구리, 藝文社, 2004, 195쪽

1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제2편 지리, 江原道 三陟市廳, 1997, 200쪽

13)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1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음과 같다.

「까치」는 까마귓과의 새로 머리에서 등까지는 검고 윤이 난다. 어깨와 배는 희며 봄에 5 - 6개의 알을 낳는다. 이 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까치」를 길조(吉鳥)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까치」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과실나무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까치」는 사람의 집 근처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삼척사람들은 이 「끼치」에 대해서 사투리로 「까챙이」 혹은 「가챙이」라고 불렀다.<sup>15)</sup>

삼척사람들은 꿩의 암컷인 「까투리」는 사투리로 「까토리」라고 표현하였다. 「꿩」은 꿩과의 새로 닭과 비슷한 크기이다. 알락달락한 검은 점이 많고 꼬리가 길다. 수컷은 목이 푸른색이고 그 위에 흰 줄이 있으며, 암컷보다 크게 우는 것이 특징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갈색에 검은색 얼룩무늬가 있다.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 한다. 5 - 6월에 6 - 10개의 알을 낳는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하는 「꿩」은 삼척사투리로 「꿩」이라고 하였다.<sup>16)</sup>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인 「날개」는 삼척사투리로 「나래」 혹은 「날람지」라고 하였다. 「날개」는 뒷발음이 많은 삼척사투리에 비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는 삼척사투리로 「모이」, 「멩이」, 「몽이」라고 불렀다.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인 「부리」는 삼척사투리로 「주뎡이」 혹은 「주뎡이」라고 표현하였다. 수릿과의 새인 「솔개」는 삼척사투리로 「소리개」, 「솔기」, 「솔개미」, 「소」라고 불렀다. 종다릿과의 새인 「종달새」는 「종다리」라고 하였다.<sup>17)</sup>

까마귓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까마귀」. 몸은 대개 검은색이며 번식기는 3 - 5월이다. 어미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하여 「반포조」 또는 「효조」라고도 하였다. 잡식성으로 갈까마귀, 떼까마귀, 잣까마귀 따위가 있다. 이 「까마귀」는 삼척사투리로 「까마구」 혹은 「까마기」라고 하였다.<sup>18)</sup>

오릿과의 새인 「거위」는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다. 거위는 목이 길며 헤엄은 잘 치지만 잘 날지는 못한다. 12 - 1월에 10 - 20개의 알을 낳는다. 기러기를 식육용(食肉用)으로 개량한 변종이다. 밤눈이 밝아서 개 대신으로 기르기도 한다. 이 「거위」는 삼척사투리로 「겨우」 혹은 「계우」라고 불렀다.<sup>19)</sup>

오릿과에 딸린 철새를 통틀어 「기러기」라고 한다. 기러기는 오리와 비슷하나 목이 길고 다리가 짧으며 강, 바다, 늪가에 산다. 기러기는 가을에 한국에 와서 봄에 시베리아, 사할린, 알래스카 등지로 가는 겨울 철새다. 쇠기러기, 큰기러기, 회색기러기 따위가 있는 「기러기」는 삼척사투리로 「기레기」 혹은 「지러기」라고 표현한다.<sup>20)</sup>

닭이 낳은 알로 알껍데기, 노른자, 흰자 따위로 이루어져 있는 「달걀」은 삼척사투리로 「달갱이」, 「계란」, 「달갈」로 부른다.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으로 빗갈이 붙고 시울이 톱니처럼 생긴 「벼」의 삼척사투리는 「벼슬」 혹은 「베실」이라고 표현한다.

올빼미과의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칙부엉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부엉이」. 부엉이는 야행성이거나 박모성(薄暮性) 종이 많지만 쇠부엉이 같이 낮에 활동하는 종도 있다. 여기서 박모(薄暮)는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이며 「땅거미」라고 한다. 전 세계에 23속 130여 종이 알려져 있는 「부엉이」의 삼척사투리는 「부형이」 혹은 「부행이」라고 부른다.<sup>21)</sup>

1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2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제비트 과의 새로 몸의 길이는 18센티미터 정도이며 등은 윤기가 있는 푸른빛을 띤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인 「제비」. 제비는 이마에서 위쪽 가슴에 걸쳐 검은 테로 둘러싸인 밤색의 큰 반점이 있다. 꼬리가 가위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날개가 발달하여 빨리 난다. 열대 또는 아열대인 인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봄에 우리나라에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에 날아간다. 전래동화 「흥부 놀부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번식하는 「제비」의 삼척사투리는 「지비」라고 하였다.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어린 닭으로 닭의 새끼를 이르는 말인 「병아리」는 삼척사투리로 「빙아리」 혹은 「뺑아리」라고 불렀다.<sup>22)</sup>

#### 6) 오십천 주변에는 어떤 짐승이 서식하나?

오십천 변은 석회암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틈과 구멍, 동굴이 많다. 이들 틈과 구멍과 동굴은 동물생태계의 최하위인 쥐등 설치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설치류를 잡아먹는 맹금류와 포유류 가운데 맹수들이 많이 서식하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십천 주변을 비롯한 삼척지역 서식하고 있는 짐승들의 생태에 대해서 역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23)</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수류(獸類)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의 새끼인 「강아지」는 삼척사투리로 「가아지」 혹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물의 꼬무니나 몸뚱이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짐승에 따라 조금씩 모양이 다른 「꼬리」는 삼척사투리로 「꼬랭이」, 「꼬랑지」, 「꼬지」라고 불렀다. 사슴과의 포유류로 몸은 1-1.2미터, 어깨의 높이는 65-86센티미터인 「노루」. 여름에는 누런 갈색이고 겨울에는 누런 흑색으로 꼬무니에 흰 반점이 나타난다. 수컷은 세 갈래로 뚫은 뿔이 있는데 겨울에 빠지고 봄에 새로 나며, 꼬리는 흔적만 남아 있다. 삼림 지대에서 풀이나 열매 따위를 먹고 사는데 4-5월에 1-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한국, 아무르, 중국, 유럽 등지에 분포하는 「노루」의 삼척사투리는 「놀갱이」, 「놀기」, 「노르」라고 하였다.<sup>24)</sup>

멧돼지와 포유류인 「산돼지」는 「산돼지」 혹은 「멧돼지」라고 불렀다. 고양이과의 포유류인 「살쥬」는 「살쥬이」, 「살쟁이」, 「살기」라고 하였다. 「여우」는 갯과의 포유류로 개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70센티미터 정도이고 훌쩍하다. 대개 누런 갈색 또는 붉은 갈색이다. 「여우」는 주둥이가 길고 뾰족한데 꼬리는 굵고 길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여우」는 삼척사투리로 「여쟁이」, 「여수」, 「여시」라고 하였다.<sup>25)</sup>

토끼과의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토끼」. 귀가 길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발달하였으며 꼬리는 짧다. 초식성으로 번식력이 강하다. 「토끼」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이 「토끼」는 삼척사투리로 「퇴끼」 혹은 「토쟁이」라고 불렀다. 「벼룩」은 벼룩목에 속하는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벼룩」은 개벼룩, 꿩벼룩, 꽃벼룩, 일본쥐벼룩 따위가 있다 「벼룩」의 삼척사투리는 「베레기」 혹은 「배룩이」라고 하였다.<sup>26)</sup> 범의 새끼인 「개호주」는 「개갈가지」 혹은 「갈가지」라고 표현하였다. 고양이과의 하나인 「고양이」.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살쥬이를 길들인 것이다. 턱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2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2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2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2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2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2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주로 한다. 「고양이」는 발톱을 자유롭게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다.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고양이」는 애완동물로도 육종하여 여러 품종이 있다. 이 「고양이」는 삼척사투리로 「고녕이」, 「고녕이」, 「괴」라고 하였다.<sup>27)</sup>

말의 새끼인 「망아지」는 「마지」 혹은 「말마지」라고 하였다. 사슴과에 속하는 포유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사슴」. 대륙사슴, 백두산사슴, 우수리사슴 따위가 있다. 이 「사슴」은 삼척사투리로 「사심」이라고 표현하였다. 숫과의 포유류로 몸의 높이는 1.2 - 1.5미터이며 검은색, 흰색, 갈색 따위의 짧은 털이 나 있는 「소」. 뿔은 없거나 한 쌍이 있고 발굽은 둘로 갈라져 있다. 「소」는 꼬리가 가늘고 긴데 끝에는 술 모양의 털이 있다. 「소」는 풀 따위를 먹고 한 번 삼킨 것을 되새김한다. 「소」는 옛날부터 기른 유용한 가축으로 운반, 경작 따위에 쓰인다.

「소」는 고기나 젖은 식용하며 가죽, 뿔 따위도 여러 가지로 이용한다. 「소」는 세계 각지에서 기르는데 홀스타인, 에어서, 한우 따위의 품종이 있다. 이 「소」는 삼척사투리로 「쇠」라고 한다.<sup>28)</sup>

아주 오랜 옛날 지질시대에 오십천과 삼척, 한반도에 서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구세계원숭잇과와 신세계원숭잇과의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원숭이」. 늘보원숭이, 개코원숭이, 대만 원숭이 따위가 있다. 이 「원숭이」의 삼척사투리는 「원생이」 혹은 「잔내비」라고 표현하였다. 고양이과의 포유류인 「호랑이」.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 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호랑이」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호랑이」는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이 같이 산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이 「호랑이」의 삼척사투리는 「호랭이」, 「뱀」, 「산짐승」, 「큰짐승」 등으로 불린다. 이는 매우 다양해 지역주민과의 친밀도를 드러낸다. 「호랑이」의 삼척사투리 가운데 「산짐승」, 「큰짐승」은 다분히 민중적인 은어(隱語)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여기서 은어(隱語)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을 뜻한다.

## 7) 오십천 주변에는 어떤 곤충과 파충류가 서식하나?

오십천은 석회암을 이루고 있는 하천의 물 빠짐이 많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를 위해서 늘과 방죽 등을 물을 가두어 두는데 열중하였다. 이곳에는 많은 곤충과 이를 잡아먹는 파충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에 서식하는 곤충과 파충류들의 생태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30)</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곤충(昆蟲), 파충류(爬蟲類)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파충강 뱀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뱀」. 몸은 원통형으로 가늘고 길며, 다리와 눈꺼풀, 귓구멍이 없다. 「뱀」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고 오래되면 탈피한다. 「뱀」은 현재 27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열대 지방에 많은 종류가 분포한다. 이 「뱀」의 삼척사투리는 「배암」이다. 건강식을 파는 장사꾼들이 「뱀」을 「배암」이라고 많이들 강조했다. 양서강 개구리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개구리」. 개구릿과의 하나로 몸의 길이는 5 - 9센티미터이다. 대개 녹색을 띤 갈색에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 무늬가 있다. 「개구리」 머리는 세모지고 등 쪽에는 주름과 혹 같은 돌기가 많으며 배는 희거나 누런색이다. 「개구리」는 한국, 몽골, 중국, 일본 등지

2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2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2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에 분포한다. 이 「개구리」의 삼척사투리는 「깨구리」, 「깨구락지」, 「깨고리」다.<sup>31)</sup>

거머리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거머리」의 삼척사투리는 「그마리」다. 파리의 애벌레가 차차 자라 꼬리가 생기고 번데기가 되었다가 파리가 되는 「구더기」. 이 「구더기」의 삼척사투리는 「구데기」 혹은 「가시」라고 표현하였다. 노래기강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노래기」. 몸의 길이는 3 - 28밀리미터로, 몸은 원통형으로 길다. 등은 붉은 갈색에 한 마디에 두 짝의 짧은 발이 있다. 「노래기」는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란내를 풍긴다. 햇볕을 싫어하고 주로 습기가 많은 낙엽 밑이나, 초가지붕에 많이 산다. 이 「노래기」의 삼척사투리는 「뇌네기」, 「행낭각씨」, 「노네기」다.<sup>32)</sup>

「호박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말벌」. 말벌과의 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말벌과의 벌로 몸은 암컷이 2.5센티미터, 수컷이 2센티미터 정도이다. 검은 갈색에 갈색 또는 누런 갈색의 털이 나 있다. 「말벌」은 대개 육식성으로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말벌」은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에서 극동까지 분포한다. 이 「말벌」의 삼척사투리는 「바두래」 혹은 「바다리」다. 모깃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모기」. 이 「모기」의 삼척사투리는 「모쟁이」 혹은 「모구」이다. 땅벌을 이르는 말인 「땅비」. 그렇지만 성질이 급하고 못된 사람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 「땅비」의 삼척사투리는 「바대리」다.<sup>33)</sup> 삼척지역에서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 가운데 「땅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각다섯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각다귀」. 몸의 길이는 2센티미터 정도, 날개는 2센티미터 정도이고 회색이며, 다리가 길다. 「각다귀」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 「각다귀」의 삼척사투리는 「깔다귀」다. 절지동물문 거미강 거미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거미」. 몸은 머리, 가슴과 배로 구분된다. 다리는 네 쌍이고 날개와 더듬이가 없다. 「거미」는 항문 근처에 있는 2 - 4쌍의 방적돌기에서 진득진득한 실을 뽑아 그물처럼 쳐 놓고 벌레를 잡아먹다. 「거미」는 전 세계에 약 3만 종이 알려져 있다. 이 「거미」의 삼척사투리는 「거무」다.<sup>34)</sup>

간장, 된장, 술, 초, 김치 따위 물기 많은 음식물 겉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물질인 「골마지」. 이 「골마지」의 삼척사투리는 「골가지」다. 「두꺼비」는 두꺼빗과의 양서류다. 모양은 개구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크기는 그보다 크다. 몸은 어두운 갈색 또는 황갈색에 짙은 얼룩무늬가 있다. 「두꺼비」는 등에는 많은 용기가 있다. 적을 만나면 흰색의 독액을 분비한다. 「두꺼비」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이 「두꺼비」의 삼척사투리는 「뚜꺼비」 혹은 「뚜꺼비」다.<sup>35)</sup>

메뚜기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메뚜기」. 겹눈과 세 개의 홑눈이 있고 뒷다리가 발달하여 잘 뜀다. 「메뚜기」는 불완전 변태를 하며 알로 겨울을 난다. 이 「메뚜기」의 삼척사투리는 「메떼기」 혹은 「며뚜기」다. 바구밧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바구미」의 삼척사투리는 「바게미」이다. 사마귀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사마귀」. 사마귀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7 - 8센티미터이다. 누런 갈색 또는 초록색이다. 「사마귀」의 뒷날개는 반투명이고 검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사마귀」는 앞다리가 낮처럼 구부러져 먹이를 잡기에 편리하다. 「사마귀」는 8 - 9월에 나타나서 풀밭에 산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이 「사마귀」의 삼척사투리는 「범마재미」, 「사마구」, 「사리귀」다.<sup>36)</sup>

3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번데기」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성충으로 되는 과정 중에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다. 「번데기」는 고치 같은 것의 속에 가만히 들어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한다. 「번데기」는 길보기에는 휴식 상태 같지만 애벌레의 기관과 조직이 성충의 구조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번데기」의 삼척사투리는 「번더지」, 「본더지」, 「본디기」다. 이의 알인 「서캐」는 「씨캐」 혹은 「석캐」라고 하였다.<sup>37)</sup>

잠자리 목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잠자리」. 몸은 가늘고 길며 배에는 마디가 있고 앞머리에 한 쌍의 큰 겹눈이 있다. 「잠자리」는 두 쌍의 날개는 얇고 투명하며 그물 모양이다. 「잠자리」입은 씹는 입이며, 머리를 회전할 수 있다. 「잠자리」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 「잠자리」의 삼척사투리는 「소금쟁이」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목의 굽은꼬리하루살이, 무늬하루살이, 밀알라하루살이, 별꼬리하루살이, 병꼬리하루살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루살이」애벌레는 2 - 3년 걸려 성충이 된다. 「하루살이」성충의 수명은 한 시간에서 며칠 정도다. 이 「하루살이」의 삼척사투리는 「하리살이」 혹은 「날파리」다.<sup>38)</sup>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벌레」의 삼척사투리는 「벌거지」, 「벌기」, 「버리지」다. 메뚜기목 여치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여치」. 여치과의 곤충이다. 「여치」는 몸의 길이는 3.3센티미터 정도이다. 녹색 또는 누런 갈색이다. 「여치」는 더듬이가 길고 수컷은 울음소리가 크다. 「여치」는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이 「여치」의 삼척사투리는 「이치」다. 진드기과의 절지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진드기」의 삼척사투리는 「진두」 혹은 「으렁이」다.<sup>39)</sup>

#### 8) 오십천은 고지질학(古地質學)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오십천 상류인 통리협곡(桶里峽谷)은 오십장폭포(五十丈瀑布), 일명 미인폭포가 있다. 이 통리협곡은 협곡 내에 있는 오십장폭포의 두부침식(頭部侵蝕)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두부침식은 강의 폭포 등이 지층을 침식시켜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두부침식은 지층의 침식으로 강의 길이를 상류 쪽으로 후퇴시켜 강의 길이를 연장하는 작용을 뜻한다. 그래서인가, 오십천은 강 머리인 오십장폭포가 깨어져야 강 길이가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십천과 낙동강은 강 쟁탈전을 하고 있다. 오십천과 낙동강이 서로 만날 것이다 물론 수 억 만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폭포가 있는 강은 그[폭포] 머리가 깨어져야 그[강]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커지고 늘어나려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이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오십천 상류에 있는 오십장폭포인 셈이다. 통리협곡은 깊게 파여진 협곡 절벽의 역암층(礫岩層)은 철분이 산화되어 검 붉은색을 띠고 있다.<sup>40)</sup>

통리협곡 검붉은색 암석에 박혀있는 자갈은 무엇일까? 이곳의 암석은 크고 둥근 자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역암(礫岩)이라고 한다. 여기서 역암은 「자갈 역(礫), 바위 암(岩)」으로 자갈로 이루어진 바위를 말한다. 이 역암을 이루고 있는 「역(礫)」은 자갈이 서로 부딪쳐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먼 거리를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큰 돌을 움직이려면 아주 빠른 물살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역암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었을까? 통리협곡의 붉은색 역암을 구성하고 있는 자갈은 중생

3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3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5쪽

3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5쪽

3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5쪽

40)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257쪽)을 인용하였다.

41)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257쪽)을 인용하였다.



대 이전 지질시대인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다. 고생대 암석은 사암, 셰일, 석회암, 자갈들이 강물에 떠 내려와서 퇴적된 뒤, 역암이 되었다.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은 단단하다. 진흙으로 이루어진 셰일은 부드럽다. 사암은 단단하면서 모래알 크기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것이다. 이 사암은 금이 가서 잘 부서진다. 셰일은 모래보다 아주 작은 입자가 쌓인 것으로 단단하다. 사암과 셰일은 모두 퇴적암이다. 이렇게 다른 크기의 퇴적물이 서로 쌓인 것은 이들 암석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2)</sup>

통리협곡의 지층(地層)은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것이 특징이다. 지층의 층리(層理)는 모래, 점토, 자갈과 같이 입자의 크기나, 광물성분이 다른 퇴적물이 쌓일 때 만들어진다. 층리는 원래 한층 한층 순차적으로 수평으로 쌓인다.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된 층리는 지각변동으로 기울어져 경사를 이루기도 한다.<sup>43)</sup>

### 9) 폭포와 강은 왜 「머리가 깨어지는 아픔으로」 갱탈전을 벌이나?

오십천 상류는 오십장폭포가 있다. 이 오십장폭포는 다른 이름으로 미인폭포로 불린다. 이 오십장폭포는 두부침식(頭部侵蝕)에 의해서 생긴 폭포이다. 여기서 두부침식은 강 침식 형태의 하나이다. 강이 상류 쪽으로 침식하여 그 길이를 증가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강 침식은 그 방향에 따라 하방침식, 측방침식, 두부침식 등으로 구분한다. 지반(地盤)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하천의 침식력(侵蝕力)이 부활된다. 그리하여 하방침식을 활발히 하게 된다. 이러한 침식은 기준면(base level)으로부터 상류 쪽을 향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지구적 규모에서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海水面)이 된다. 두부침식의 전형적인 예는 하천에 발달한 폭포가 상류 쪽으로 점차 그 위치를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sup>44)</sup>

폭포는 하상(河床) 종단면(縱斷面)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경사급변점(傾斜急變點, knick point)을 말한다. 강 상류 쪽으로 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기반암의 경연차(硬軟差)에 의해 침식력에 차이를 가져온다. 여기서 경연차(硬軟差)는 암석의 딱딱하고 부드러운 차이를 뜻한다. 폭포는 경암(硬岩)과 연암(軟岩)의 경계부에 거의 수직의 하상이 발달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2개의 강이 존재할 경우, 강은 서로 만나게 된다. 이는 한 개의 강에서 두부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면 두 강은 필연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강쟁탈(江爭奪)이라고 한다. 폭포와 강쟁탈은 두부침식의 좋은 예이다.<sup>45)</sup>

두부침식의 현황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폭포는 세계적으로 전형적인 두부침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원래의 나이아가라 폭포는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하류 쪽에 있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두부침식이 진행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동된 것이다.<sup>46)</sup>

우리나라는 두부침식에 의한 폭포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제주도 서귀포의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는 두부침식에 의해 해안가로부터 내륙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42)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257 - 258쪽)을 인용하였다.

43)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258쪽)을 인용하였다.

44) (『네이버지식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용하였다.

45) (『네이버지식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용하였다.

46) (『네이버지식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용하였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에 발달한 직탕폭포는 북아메리카의 나이아가라를 닮았다고 해서 ‘한국의 나이아가라’로 불린다.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다. 두부침식에 의해 상류로 계속 이동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학자들은 직탕폭포가 한탄강을 따라 계속 두부침식을 하다보면 38 선을 넘어 북한으로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한다.<sup>47)</sup>

두부침식이 진행되는 지형은 협곡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무암지대는 주상절리(柱狀節理)가 잘 발달해 협곡이 많다. 이곳 현무암 협곡지대는 두부침식과 하방침식이 진행된 강은 대규모 협곡이 잘 발달한다. 경기도 연천의 재인폭포와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는 우리나라에서 두부침식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이들 두 폭포의 공통점은 한탄강 본류로부터 작은 지류를 따라 두부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 두부침식이 진행되는 경계부가 바로 폭포인 것이다. 현재의 폭포와 한탄강 본류 사이는 100여 미터가 되었다. 이곳은 좁고 깊은 협곡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경치가 장관을 이루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재인폭포와 비둘기낭 폭포 모두 현무암 주상절리와 관련하여 발달한 폭포이다.<sup>48)</sup>

#### 10) 오십천, 한강, 낙동강 3대강을 나누는 「꼭지점」은 어디인가?

오십천, 한강, 낙동강 삼대강(三大江) 꼭지점은 삼수령(三水嶺) 분수령(分水嶺)이라고 일컫는다. 분수령은 서로 이웃하는 유역(流域)에서 지표수(地表水)를 나누어 흐르게 하는 산 능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러한 분수령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 지역 간 이동시에 분수령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시 삼수동 피재는 삼척 오십천을 비롯해 한강과 낙동강 등의 세 강의 유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삼수령이라고 불리고 있다.<sup>49)</sup>

삼수령은 태백시가지에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가기 위해 35번국도로 피재를 넘는다. 이 피재가 바로 삼수령이다. 하늘에서 이곳 삼수령에 떨어진 빗물은 삼척 오십천과 한강, 낙동강 가운데 한곳으로 흘러들게 된다. 어느 강으로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삼척 오십천 물이 될 수 있다. 낙동강 물이 될 수 있고, 한강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수령이라고 부른다. 삼수령 고개 정상(해발 935미터)에는 삼수령 기념탑과 정자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삼척 오십천과 한강, 낙동강 삼수의 분계가 만나는 「꼭지점」은 고갯길과 기념탑으로부터 남서쪽 약 1킬로미터 지점이다.<sup>50)</sup> 오십천, 한강, 낙동강 삼대강 「꼭지점」은 이곳은 태백시 삼수동 매봉산풍력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오십천, 한강, 낙동강 삼대강 「꼭지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 11) 오십천 상류에 왜 탄광촌 형성되었나?

석회암은 전기고생대에 발견되지만, 석탄층은 후기고생대에서 발견된다. 석회암과 석탄 모두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sup>51)</sup> 퇴적암은 삼엽충 등 석회질이 쌓여 형성된 석회암과 자갈이

47) (『네이버지식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용하였다.

48) (『네이버지식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부침식(頭部侵蝕),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인용하였다.

49) (김도현 장동호 홍진표, 『3대강 꼭지점으로 떠나요』, 강원도민일보 태백시, 2013, 16쪽)을 인용하였다.

50) (김도현 장동호 홍진표, 『3대강 꼭지점으로 떠나요』, 강원도민일보 태백시, 2013, 16쪽)을 인용하였다.

51)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31쪽

쌓인 굳어진 역암, 모래가 쌓여 굳어진 사암, 진흙이 쌓여 굳어진 사암 등이 있다. 석탄은 이들 퇴적암 속에 후기 고생대의 고사리와 나무 등이 쌓이면서 형성된 경도가 낮은 퇴적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은 무연탄과 석회석이 풍부하다. 무연탄은 평안 누층군 가운데 상부 지층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석회석은 조선 누층군 중 대석회암 층군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대석회암 층군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은 평안 누층군 가운데 상부 지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소화천계곡을 비롯해 도계읍 오십천 강변 계곡 주변이 바로 그곳이다. 본래 영동선철도가 오십천 계곡을 통과하도록 개설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도계읍 일대의 무연탄을 개발하려는 데 있다. 도계읍의 도계리, 전두리, 흥전리에 인구 밀집지대 형성된 것도 무연탄개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1992년 도계읍 일대 무연탄광은 32광구가 가행해 호황을 누렸다. 전국 각처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 도계로 몰려들어 도계는 검은 황금을 낳은 약속의 땅이었다. 당시 광산 종업원 수는 4,500명으로 그 가족 수와 탄광관련 종사자들을 합해 도계읍에는 3만 여명의 정주인구가 살았다. 도계는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4만5,000명의 인구가 살았다. 때문에 “도계읍내를 활보하는 개들도 입에 1만 원 권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도계시가지를 걸어가면 사람들끼리 몸이 부딪치는 것은 다반사였고, 사람 숨소리까지 스쳐 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나 도계지역은 무연탄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를 거치면서 2017년 현재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사기업체인 경동광업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sup>53)</sup>

### III. 오십천 인문환경

#### 1) 오십천 발원지와 명칭은 어떻게 생겼나?

오십천은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 경계인 백병산(白屏山, 1259.3미터)에서 시작된다. 이 하천은 이곳 백병산에서 시작해 삼척 정라진 하구에서 바다[동해]로 흘러든다. 오십천은 태백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면서 삼척지역을 동서로 양분한다. 따라서 이 하천을 따라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이 철도와 도로는 태백산맥(太白山脈)의 동서를 연결해 준다. 삼척 오십천 발원지는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백병산 북서쪽 능선 가까이에 있다. 이곳 백병산 북서쪽은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sup>54)</sup>으로 고산습지(高山濕地)가 나타난다.<sup>55)</sup>

52)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49 - 50쪽

53)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50쪽

54) 여기서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은 평탄한 침식면이 용기하여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지형을 말한다. 한반도는 지속적인 침식 작용을 받아 전체적으로 낮고 평탄화 된 지형을 이룬다. 신생대 제3기 태백산맥을 축으로 하는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하여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형성된다. 그 결과 용기를 받은 일부 지역에서 고도는 높지만 비교적 평탄한 면을 이루는 지형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평탄한 침식면이 용기하여 높은 고도에 위치하는 지형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한다. 고위평탄면은 이 지역이 과거에 평탄했음을 증명하는 유물지형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고위 평탄면은 특히 오대산과 태백산에 걸친 해발 900m 이상의 고도에서 기복이 300m 내외인 지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개마고원, 대관령 등지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백과』, 『개념톡톡용어사전』 지리편, 고위평탄면)

55)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

오십천 발원지에 대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척주지』(허목, 1662년), 『여지도서』, 『삼척군지』(심의승, 1916년) 등지의 기록에 보인다. 이들 책에서 오십천은 삼척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리진 별도의 산인 우보산(牛甫山) 혹은 유현(楡峴)에서 발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유현은 느릅령을 말한다. 그 발원지를 구사홀(九沙屹)이라고 한다.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가 있다. 여기서 수 십장의 폭포는 오십장폭포(五十丈瀑布), 또는 미인폭포(美人瀑布)라고 한다. 이 폭포에서 흘러내린 물이 동쪽으로 백 여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에 오십천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부 기록은 삼척부에서 물 근원지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해 대충 헤아려 오십천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56)</sup>

## 2) 오십천은 옛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옛 문헌에 오십천은 태백산 권역 동쪽 기슭에서 별도로 이어진 우보산(牛甫山) 또는 유현(楡峴), 백산(白山) 골짜기에서 발원한다. 오십천은 오십장폭포[미인폭포]를 지나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로 유입된다. 오십천은 전체 50굽이를 돌아 삼척포(三陟浦)를 통해 바다[동해]로 들어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십천이라는 이름은 하천이 약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sup>57)</sup>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8)에 『오십천(五十川)은 삼척부 성(城) 서쪽 1백5리에 있다. 물 근원이 우보현(牛甫峴)에서 나오며, 죽서루(竹西樓) 밑에 와서는 휘돌면서 못이 되었다. 또 동쪽으로 흘러 삼척포(三陟浦)로 되어,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삼척부에서 물 근원까지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하므로 대충 헤아려서 오십천이라 일컫는다.』<sup>59)</sup>

허목(許穆, 1595 - 1682년)은 『척주지(陟州誌)』 60)에서 『우보산(牛甫山)은 혹은 유현(楡峴)이라고도 한다. 삼척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리진 별도의 산이다. 오십천(五十川)은 이 산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홀(九沙屹)이라한다.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이다. 이 물이 동쪽으로 백 여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오십천이라고 한다.』<sup>61)</sup>

『여지도서(輿地圖書)』 62)에서 오십천(五十川)은 『우보현(牛甫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 죽서루(竹西樓) 아래에 와서는 휘돌면서 못을 이룬다. 또 동쪽으로 흘러 삼척포(三陟浦)로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물의 근원에서 삼척포까지 모두 마흔 일곱 번을 건너야 한다. 그래서 대충

연구소, 2011, 111쪽)을 인용하였다.

56)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1쪽)을 인용하였다.

57)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3쪽)을 인용하였다.

5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4권, 강원도 삼척도호부 산천조(山川條), 1530년

59)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2쪽)을 인용하였다.

60) 허목(許穆), 『척주지(陟州誌)』 하권, 소달리조(所達里條), 1662년

61)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2쪽)을 인용하였다.

62) 『여지도서(輿地圖書)』, 삼척도호부 산천(三陟都護府 山川), 1757 - 1765년

헤아려서 오십천이라고 일컫는다. 삼척관아에서 서쪽으로 오십천의 근원까지 1백 5리이다.』 63)

심익승(沈宜昇)은 『삼척군지(三陟郡誌)』 64)에서 『가장 흐름이 긴 하천은 오십천(五十川)이다. 연장 12리(里)로 소달면 구사리(九士里)와 대이리(大耳里)에서 발원한다. 부내면 정라항에 유입된다.』 65)

심익승(沈宜昇)은 같은 책에서 『본 면의 남북을 관통하여 흐르는 오십천(五十川) 본류는 오십장(五十丈) 폭포로 심포천(深浦川)을 이룬다. 그 밖의 상덕천(上德川), 황우락천(黃牛落川), 환선천(幻仙川) 등을 합하여 미로면으로 흘러간다.』 66)

심익승(沈宜昇)의 같은 책에는 『백산(白山) 골짜기에서 발원한 오십천 원류는 죽암산 남단을 서쪽으로 흐르면서, 오십장폭포[미인폭포]를 만들고 심포리로 유입한다.』 67)

### 3) 오십장폭포인가, 미인폭포인가?

오십천 상류로 보고 있는 오십장폭포, 일명 미인폭포는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남쪽에 위치해 있다. 우보산(牛甫山)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이곳에서 폭포를 이루어 오십천의 원류가 된다. 이 폭포는 높이가 오십장(五十丈)이나 된다고 하여 옛날에는 오십장폭포(五十丈瀑布)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68) 오십장폭포에서도 삼척사상의 근본인 「오십정산(五十井山)」, 즉 「원우금메」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고지대는 고금을 통해 한 시대를 건너 미인이 출생한다고 한다. 이 근처에는 미인묘가 있다. 이 묘는 옛날 한 미녀가 출가하였다. 남편이 일찍 사망하여 재가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또다시 사망하자 그 미인은 이 폭포에 투신자살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미인폭포다. 그래서 미인은 슬픈가 보다.

## IV. 오십천 철학환경

### 1) 오십천은 삼척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힘」의 원천인가?

삼척시 미로면에는 「오십정산(五十井山)」이 있다. 이를 순수 우리말로 「원우금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원」은 「오십(五十)」을 말한다. 「우금」은 「우물」로 바위틈이나 구멍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 「금」은 「검」으로도 표현되며 신(神)을 말하기도 한다. 「한배검」에서 「한배」는 큰 또는 「크다, 한량없다, 끝이 없다」로 「검」은 「신(神)」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3)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3쪽)을 인용하였다.

64) 심익승(沈宜昇), 『삼척군지(三陟郡誌)』 산악하천(山岳河川), 1916년

65)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3쪽)을 인용하였다.

66)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3쪽)을 인용하였다.

67) (차장섭 배재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113쪽)을 인용하였다.

68) (삼척군, 『三陟郡』, 삼척군, 1988, 71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255쪽)을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검」은 물을 신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금」은 「우물신」이며 넓은 의미로 「물의 신」을 말한다. 「뫼」는 산(山)이다. 삼척사투리로 「목」은 「메기」로 불린다. 여기서 「메기」는 산 가운데서도 산의 「모가지[목덜미 항(項)]」로 볼 수 있다. 이 산모가지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목[질목]」, 또는 고개로 「목」은 삼척사투리로 「메기」, 「메가지」, 「멕아지」로 불린다.<sup>69)</sup>

## 2) 삼척사람들의 원본믿음인 「산맥이신앙」에 담긴 지혜는 무엇인가?

목[인후부咽喉部]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 급소이다. 목은 급소로 기운(氣運)이 뭉쳐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십천 변에 있으며 삼척을 대표하는 석회암산인 「덕항산(德項山)」<sup>70)</sup>은 「덕메기산」이라고 한다. 이곳 덕항산과 대이동굴지대는 돌리네와 우발레, 동굴 등 석회암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다. 삼척의 대표적 산제(山祭)인 「산메기신앙」은 장소적 측면에서 기운이 뭉쳐있다. 「산메기신앙」은 충만한 산모가지에서 행하던 기운(氣運)을 믿는 신앙행위(信仰行爲)라고 할 수 있다.<sup>71)</sup> 여기서 기운을 믿는 신앙행위는 「신령(神靈)스러움」을 믿는 「샤머니즘(Shamanism)」이기보다는, 「신명(神明)」등 그 기운(氣運)을 믿는 「마나이즘(Manaism)」<sup>72)</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석회암지대인 삼척 오십천 변 사람들은 이곳 「산모가지[메기]」에 「제물[메]」을 「먹이[멕이]」며 무엇이든 해결해 주는 산의 힘에 대해 강한 「믿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대자연에 감사하고 삶에 「활력소(活力素)」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sup>73)</sup>

## 3) 오십천은 현실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초현실의 원천수인가?

오십정산(五十井山), 즉 천우금메의 사유력(思惟力)은 삼척을 가로질러 흐르는 오십천(五十川)에도 살펴 볼 수 있다. 오십천의 순수 우리말은 「썩개울」이다. 여기서 오십은 석회암지대를 굽이쳐 흘러내리는 긴 개울을 의미한다. 오십천은 석회암지대를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모습인 감입곡류(嵌入曲流) 강이다. 여기서 감입곡류(嵌入曲流)는 산지나 고원 지대에서 깊은 골짜기 사이를 구불구불 굽이쳐 흐르는 강을 말한다. 감입곡류 강은 삼척 오십천이 대표적이다. 오십천은 「산과 물이 서로 얽히어 싸고돈다」는 「산진수회(山盡水回)」의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산태극(山太極)과 수태극(水太極)」의 모습이다. 오십천이 흐르는 삼척은 단연 근대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 살기 좋은 「현실유토피아(現實utopia)」라고 할 수 있다.<sup>74)</sup> 여기서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 「아니다(ou)」와 장소(topos)의 합성어다. 유토피아는 지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유토피아(現實utopia)」는 지상에 존재하는 「현실이상향(現實理想郷)」을 말한다.<sup>75)</sup> 산과 산 사이를 휘감아 돌아 삼척사람들의 힘

69)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1쪽)을 인용한 것을 인용하였다.

70) 여기서 「덕항산(德項山)」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과 하장면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높이 1,071미터의 산이다. 덕항산 중턱에 동양 최대 크기의 석회암 동굴인 환선굴이 있다. (『위키백과』 덕항산(德項山))

71)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1쪽)을 인용한 것을 인용하였다.

72) 마나이즘(manaim)은 종교의 기원을 마나(mana)의 관념에서 구하려는 학설이다. 여기서 마나(mana)는 멜라네시아 일대의 원시 종교에서 생겨난 비인격적이며 초자연적인 힘, 영력(靈力), 주술력(呪術力) 따위의 관념을 말한다. 마나(mana)는 인간이나 물체 따위의 모든 것에 작용한다. 마나(mana)는 언제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추장이 주문(呪文)을 통해 무엇을 이루거나 무기로 적을 쓰러뜨렸을 경우, 그 추장이나 무기에 마나(mana)가 깃들어 있다고 한다. 영력(靈力), 주력(呪力) 따위의 관념으로, 때로는 사람에게 공포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73)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2쪽)을 인용한 것을 인용하였다.

74)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2쪽)을 인용하였다.

75)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2쪽) 각주를 재인용하였다. 여기서 「현실유

의 원천인 오십천. 이 강은 삼척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초현실의 원천 수다. 힘이 넘치는 오십천이 있는 삼척은 「현실유토피아」 라고 할 수 있다.

#### 4) 오십정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오십천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1916년 삼척군수 심의승(沈宜昇)이 편찬한 『삼척군지(三陟郡誌)』이다. 이 책에는 오십천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 심의승은 오십천의 분류를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오십장폭포<sup>76)</sup>로 보고 있다. 여기서 오십장폭포는 미인폭포를 말한다. 「오십(五十)」을 순수 우리말로 「쑤」로 표현한 것은 심의승의 『삼척군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77)</sup>

먼저 삼척민속신앙의 태반(胎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로면 내미로리 「쑤음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쑤음산」에는 바위가 쑤 개 정도 움푹 파인 우물이 있다. 바로 「쑤우금」으로 한자로 표현하면 「오십정(五十井)」이다. 또 오십천 변에 위치한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 2리 「쑤우금」 마을에서도 「쑤」이란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sup>78)</sup> 여기서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 2리 주민들은 마을 건너 새로 개설된 38번 산업국도 동쪽에 있는 잘 발달된 돌리네 지형을 「쑤우금」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곳 마을 지명은 「쑤우금마을」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로면 하거노 1리 사람들은 「쑤우금」 보다는 「쑤우메[뫼]마을」로 알고 있다. 여기서 「금」과 「메[뫼]」를 혼돈하고 있다. 석회암 지형으로 볼 때 「우금」은 움푹 파인 곳, 즉 「돌리네(Doline)」지형을 말한다. 「메」는 「돌리네」지형이 연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산처럼 불쑥 솟아 오른 곳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카르스트지형 용어로는 「코크핏」을 말한다.<sup>79)</sup>

여기서 「돌리네」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에서 관찰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움푹 파인 땅을 뜻한다. 석회암이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생긴다.<sup>80)</sup> 「코크핏 카르스트」는 카르스트 준평원 상에 잔재하는 원추 카르스트 중의 한 유형이다. 「코크핏 카르스트」는 자바의 중남부,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등 열대습윤지역에 모식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석회암의 잔구인 「코크핏 카르스트」는 그 형태가 원추형이라기보다는 반구형에 가깝다. 이들 잔구들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 - 80미터 내외로 균일한 편이다. 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분포할 경우 분지의 평면 형태가 마치 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코크핏」은 원래 자메이카에서 이들 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sup>81)</sup>

오십천의 「오십(五十)」과 「쑤」이라는 이름은 삼척 바닷가 마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바닷가 화방산(花芳山)<sup>82)</sup>에는 그리 크지 않은 동굴이 있다. 이 동굴은 바닷물이 들락날락 거리고 작은 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 동굴을 「오십혈(五十穴)」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오십혈」은 순수 우리말로 「쑤구무」라고 말한다.<sup>83)</sup>

토피아(現實utopia)」는 필자가 처음으로 만들어 쓴 신조어(新造語)이다.

76) (심의승 엮음, 배재홍 옮김 국역삼척군지, 삼척시립박물관, 2009, 135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2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77)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2 - 13쪽)을 인용하였다.

78)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3쪽)을 인용하였다.

79)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3쪽)각주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80) 『네이버 어학사전』, 돌리네(Doline)

81) 『네이버 지식백과』 코크핏 카르스트(cockpit karst)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한울아카데미)

82) 화방산(花芳山)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마을에서 신남마을 쪽 해변에 위치해 있다. 갈남마을을 중심으로 남으로 화산순, 북으로 후현산, 서로는 풍취산, 동으로는 동해 중앙이 화방산이다. 이 화방산은 바닷가에 위치한 바위산으로, 이름처럼 바위가 꽃처럼 생겨 아름답다. (이승철 외, 『강원도동해안 바위설화』, 강원도환동해본부, 198쪽)

83) (심의승 엮음, 배재홍 옮김 『국역삼척군지』, 삼척시립박물관, 2009, 84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

오십천은 석회암지대를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길이가 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오십장폭포는 큰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한없이 높은 폭포를 말하고 있다. 「오십혈」은 작은 구멍[틈]이 수없이 많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십(五十)」, 즉 「원」은 50이란 정확한 숫자개념으로는 「한 가운데」를 의미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십은 「길다, 많다, 크다, 높다, 굽이치다, 오래 산다」 등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sup>84)</sup> 그래서 오십천은 50여 번을 굽이쳐 흐르는 강을 말한다.

### 5) 오십의 사상적 의미는 무엇인가?

오십(五十), 즉 원은 삼척지역 지명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십이 갖는 숫자적인 의미와 「우물 정(井)」자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오십은 단군사상(檀君思想)<sup>85)</sup>과 관련이 깊다. 단군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물 정(井)자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이처럼 세상을 덕화(德化)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단군사상은 우물이 마르지 않음과 같이 덕(德)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정덕(井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우물 정(井)자 안에 열 십(十)자를 그으면 정전(井田)이 된다. 이 정전제(井田制)는 역사적으로 단군치세의 제도였다. 우리 활거레[동이족東夷族]는 주로 해안지대에 위치해 홍수의 범람이 잦았다. 활거레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곳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나[중국]의 산둥반도(山東半島)이다.<sup>86)</sup> 따라서 물을 잘 다스리는 치수(治水)가 관건이었다.

오십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하도(하도)와 낙서(낙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도 수는 55이고, 낙서 수는 45이다. 이를 합하면 100수가 된다. 100은 온전수다. 그 안에 음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를 둘로 나누면 50이 된다. 50은 100을 쓰는 용수가되며, 『주역』에서 말하는 대연수가 되는 것이다.<sup>87)</sup> 50은 100의 중심을 나타낸다. 오십사상은 바로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여건에서 발전하게 된 사상이 바로 오행사상(五行思想)이다.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 오행의 근본은 수(水)이다. 따라서 치수(治水)는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강변에 위치해 있어 침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활거레는 치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정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전제를 상징하는 우물 정(井)은 우리 활거레의 상징부호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물가[오십천]에 위치한 활거레의 후손인 삼척사람들에게 오십정(五十井)이라는 상징부호가 남아 있는 것인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sup>88)</sup>

### 6) 「원음」과 「원구무」는 단군신화 탄생과 관련 있나?

「원음」과 「원구무」는 삼척 민간신앙의 바탕신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기원신화로

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3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84)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3쪽)을 인용하였다.

85) 현재까지 단군에 대한 한자인식 표기는 「단군(檀君)」과 「단군(檀君)」 두 종류가 있다. 「단군(檀君)」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표기하고 있다.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는 표기는 현재 『삼국유사』에만 나타나고 있다. 「단군(檀君)」은 『삼국유사』 이외의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단군(檀君)」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전제훈, 「한국고대신화의 Manaism적 조명」,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3년 박사학위 논문, 103 - 108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5쪽) 각주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86) (서병국, 『대동이탐구』, 한국학술정보, 2010, 148 - 149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6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87) (신순범, 「두타, 태백의 이상향」,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2006, 429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7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88)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6쪽)을 인용하였다.



알려진 단군신화와도 많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군신화 속에서 곰과 범이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썩을 먹으며 경희(競戲)를 벌인 곳이 바로 동굴이기 때문이다. 석회암지대의 동굴은 작은 틈[절리節理]에서 비롯된다. 석회암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이 작은 석회암지대의 틈은 장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틈에서 구멍[굴, 구무]으로 구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커다란 동굴로 생성된다.<sup>89)</sup>

단군신화는 이 석회암지대의 틈이 구멍에서 동굴로 만들어진 뒤에 원시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생한 신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틈」과 「굴[움]」은 석회암지대의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인 「돌리네」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를 모티프로 한 『제왕운기帝王韻紀』<sup>90)</sup>를 쓴 이승휴(李承休, 1224 - 1300년)의 외가가 있는 곳이 바로 원음산[오십정산五十井山] 밑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구동마을이다.<sup>91)</sup>

동굴신화는 단군신화 외에도 고구려 혈거신앙인 국동대혈신앙(國東大穴信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국동대혈신앙은 수신(隧神) 하백의 딸인 유화부인설화와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유화부인은 태양신의 아들인 해모수와 빛놀이를 통해 주몽을 잉태하게 된다. 이 주몽이 바로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이다. 단군신화와 유화부인설화 등 동굴을 모티프로 하는 설화는 「물[곰, 수水]과 불[범, 화火]」과 관련이 있다.<sup>92)</sup> 여기서 모티프(motif)는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사상을 뜻한다. 여러 무늬가 하나의 무늬로 통합되어 그 연속에 의해서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이루기도 한다.<sup>93)</sup> 그래서 우리민족은 전래담(傳來談)에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 7) 오십천과 단군신화, 『제왕운기』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동안거사(動安居士) 이승휴(李承休, 1224 - 1300)<sup>94)</sup>가 쓴 『제왕운기(帝王韻紀)』<sup>95)</sup>는 원음산 밑 마을인 삼척 미로면 내미로리 구동마을이다. 석회암지대인 삼척지역은 단군문화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단군 역사를 다룬 『제왕운기(帝王韻紀)』도 석회암지대인 삼척과 인연이 깊다.<sup>96)</sup>

89)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3 - 14쪽)을 인용하였다.

90) 보물 제418호로 지정된 『제왕운기(帝王韻紀)』는 동안거사(動安居士)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상하 2권의 역사저술로 고려말기인 충렬왕 13년(1287년)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운율시(韻律詩)의 형식으로 읊은 것이다.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정치폐단을 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왕권의 강화를 통한 국가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원나라 지배 하의 민족 정통성 회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엮은 것이다. 상권은 서문에 이어 천지개벽(天地開闢)과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 원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 사적을 칠언고시(七言古詩)로 읊었다. 하권은 「동국군왕개국년대(東國君王開國年代)와 본조군왕세계년대(本朝君王世系年代)」의 둘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것은 「지리지(地理紀)」에 이어 단군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칠언고시로 엮어서 단군신화의 편린도 확인할 수 있다. 뒤의 것은 고려의 조상인 작제건(作帝建) 설화에서 당대의 임금 충렬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오언고시로 노래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왕운기帝王韻紀)

91)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4쪽)을 인용하였다.

92)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4쪽)을 인용하였다.

93) 『네이버 어학사전』, 모티프(motif)

94) 이승휴(李承休)는 고려 시대의 학자이자 문인(1224 - 1300). 자는 휴휴(休休). 호는 동안거사(動安居士).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서 문명(文名)을 떨쳤다. 돌아와 감찰대부, 사림 승지(詞林承旨) 등의 벼슬을 지냈다. 저서에 『제왕운기』, 『동안거사문집』, 『내전록(內典錄)』 따위가 있다. (『네이버 어학사전』, 이승휴(李承休))

95) 『제왕운기(帝王韻紀)』는 고려 충렬왕 때에, 이승휴가 지은 사서(史書).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사적을 칠언시로 기술하였다. 2권 1책의 목판본. (『네이버 어학사전』, 제왕운기(帝王韻紀))

96)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341쪽)을 인용하였다.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쓴 동안거사(動安居士) 이승휴(李承休)는 1224년(고종 11년)에 경산부 [현 경북 성주] 가리현에서 출생하였다. 『제왕운기』의 찬술은 그가 충렬왕 6년(1280년)에 전중시사(殿中侍史)로서 시정득실을 논하다가 파직당하여 삼척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루어졌다. 이 책은 충렬왕 13년(1287년)에 마무리되었다.<sup>97)</sup>

우연의 일치일까. 삼척시 미로면 두타산사는 산신신앙과 관련이 깊다. 단군신화에는 「단군이 죽은 후 산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단군과 산신신앙과 인연이 깊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승휴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구동마을에서 역사서인 『제왕운기』를 쓰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신화 등 설화를 과감하게 인용하였다. 이승휴는 단군신화를 통해 우리민족이 지나 [중국]인이 아닌 하늘의 신인 천신(天神)에서 비롯된 우수한 민족임을 과시하였다.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 그 뒤 박달나무 신인 단수신(檀樹神)과 혼인시켜 단군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민족의 시조를 하늘의 천신과 연결시키고 있다.<sup>98)</sup>

『제왕운기』는 우리 활겨레의 역사를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했다. 단군은 곰의 자손으로 「곰」은 「검, 금」으로 우물신과 관련이 있어 오십천과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 8) 『제왕운기』는 오십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제왕운기』와 오십천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제왕운기』의 서사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왕운기』는 상권에는 서(序)에 이어 중국 역사의 요점을 신화시대부터 삼황오제(三皇五帝), 하(夏)·은(殷)·주(周)의 3대와 진(秦)·한(漢) 등을 거쳐 원(元)의 흥기에 이르기까지 칠언고시 264구로 읊어놓았다.

『제왕운기』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와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의 2부로 나누었다. 전자에는 서(序)에 이어 지리기(地理紀), 단군의 전조선(前朝鮮), 기자의 후조선(後朝鮮), 위만(衛滿)의 찬탈, 삼한(三韓)을 계승한 신라·고구려·백제의 3국과 후고구려·후백제·발해가 고려로 통일되는 과정까지를 칠언고시 264구 1460언으로 펼쳐 읊고 있다. 후자는 고려 태조 세계설화(世系說話)에서 필자 당대인 충렬왕 때까지 오언으로 읊고 있다.<sup>99)</sup>

여기서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 가운데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 등 단군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계승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단군과 오십천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오십천의 오십은 단군 정전법(井田法)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단군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물 정(井)」자로 말할 수 있다. 아무리 펴내도 한량없는 우물처럼 세상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무궁한 것이 정덕(井德)이다. 「정(井)」자 안에 열십(十)을 그 으면 정전(井田)이 된다. 정전제 역사적으로는 단군시대의 치세제도였다. 과거 우리 동이겨레는 주로 해안가에 위치했다. 그러므로 생활터전이 홍수로 인해 범람이 잦았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수(治水)가 관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된 사상이 바로 오행(五行)사상이다. 오행의 근본은 수(水)이다. 그래서 치수는 국가 경영에 있어 가장 중대한 사업이 되었다.<sup>100)</sup>

97) 『네이버 지식백과』 제왕운기(帝王韻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98)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341 - 342쪽)을 인용하였다.

99) 『네이버 지식백과』, 제왕운기(帝王韻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0) (전제훈, 『탄광으로 간 바다민속』, 민속원, 2013, 217쪽, 이응국, 「치수 통수 먼저 눈 뜬 삼척」)을 인용하였다.

『제왕운기』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우리 활겨레의 역사를 시작했고, 단군은 치수를 근본으로 여기는 정전사상을 치세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강[오십천]은 산[우보산]에서 발원해 바다[동해]로 흘러들어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9) 『제왕운기』는 시(詩)인가, 노래인가?

『제왕운기』는 시(詩)인가? 『제왕운기』는 체계상으로 볼 때 오언·칠언의 영사시(詠史詩)라는 것이다. 여기서 영사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제재로 한 시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회고(懷古)로 그리기도 한다. 또한 영사시는 기이한 옛 일을 인용하여 현재를 풍유하거나 개인의 특정 사실을 회고하고 이를 읊은 시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 명종 때 오사문(吳士文)의 「역대가(歷代歌)」가 그 시초이다. 『제왕운기』는 규모가 크고 훨씬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sup>101)</sup>

특히 장체(長體)의 영사시는 가사문학의 원초적 형태로서 고대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제왕운기』는 같은 시대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역대가」와 함께 장가체의 설화적 가사로 국문학 상의 가치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sup>102)</sup>

『제왕운기』는 이처럼 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노래로는 볼 수 없는가? 『제왕운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의문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글은 유목민족이 세운 세계대제국인 원나라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군신화가 실려 있는 『제왕운기』속 이야기는 유목민족의 노래를 역사서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단군으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계승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는 『제왕운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이전 우리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 있는 치우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묘족도 그들의 역사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묘족은 생활 속에 즐거움과 슬픔도 노래로 부른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권할 때도 노래로 부른다. 묘족의 노래 가운데 「화산가」가 유명하다. 묘족에게는 고유의 문자가 없다. 노래가 그들의 유일한 문자이다.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노래로는 「칙특가」도 있다. 석회암대의 삼척과 관련 있는 고려시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노래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sup>103)</sup>

『제왕운기』는 「하느님 제(帝), 임금 왕(王), 운 운(韻), 적을 기(紀)」를 책 제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하느님과 임금들의 운율[(韻律)·노래]에 의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왕운기』책 제목대로라면 하느님과 제왕의 노래를 기록해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고유의 운율을 잃어버리고 기록으로 전하는 『제왕운기』의 소리를 찾으면 세계적인 한류(韓流)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104)</sup>

이렇게 볼 때, 『제왕운기』도 부리아트의 게세르신화처럼 하느님의 노래를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또 몽골의 「토을」처럼 영웅과 역사의 노래를 채록하여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제왕운기』속 단군신화도 유목민족 노래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 한민족의 삶의 애환이 담긴 노래 「아리랑」도 이와 같은 유목민의 노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판소리」도 이들 유목민족의 노래와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sup>105)</sup> 필자는 이를 「단군·게세르문화강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른바 「단군·게세르문화강역론」이다.<sup>106)</sup> 이를 통

101) 『네이버 지식백과』, 제왕운기(帝王韻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2) 『네이버 지식백과』, 제왕운기(帝王韻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03)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57쪽)을 인용하였다.

104)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57 - 158쪽)을 인용하였다.

105)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58쪽)을 인용하였다.

해 볼 때, 앞으로 세계는 서로간의 경제와 문화교류를 통해 국경단위 보다는 서로의 문화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문화강역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십천은 물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단군 정전법의 치세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왕운기』는 우리민족이 단군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오십사상과 철학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0) 단군신화는 한반도 내에만 존재하는가?

이승휴(李承休)는 『제왕운기』에서 단군조선의 개국연대를 지나[중국]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나와 대등한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대만주권과 한반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모든 나라가 단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우리민족의 활동영역을 한반도에서 대만주권으로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동명왕설화를 통해서 북진정책을 추구하는 자주적인 대외의식을 표현하였다. 동명왕이 하늘의 신인 천신(天神)과 물의 신인 수신(水神)의 결합으로 탄생하였음을 지적해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sup>107)</sup>

이승휴는 이와 같이 신화 등 설화를 과감하게 역사서인 『제왕운기』에 인용하였다. 이로써 우리 한민족의 탄생 역사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영역을 대만주권역으로 넓히는 등 한민족의 주체성을 살렸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관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하겠다.<sup>108)</sup>

이 단군신화의 분포는 바이칼호수 부근에 있는 「게세르신화」 와도 닮은꼴이다. 이곳 게세르신화 가운데 아바이게세르신화가 있다. 우리 한반도에도 함경도 사람들은 「아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게세르신화는 티베트고원과 파미르고원, 몽골대평원, 만주대평원 등 『부도지(符都誌)』와 그 문화영토를 같이한다. 『부도지』는 단군게세르 문화강역인 「영원한 푸른 하늘신」을 사유문화로 하는 이야기 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오십천은 삼척에 국한되어 흐르는 강만 아니라, 우리 활겨레 민족의 시원인 유라시아와 만주대평원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강물의 근원사상과 철학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 오십천 생활환경

### 1)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나?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은 미로면 고천과 하장면 일대에서 질 좋기로 이름난 삼베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산간지역에서는 겨울철 사냥을 해서 가죽이 생산되었다. 이들 산간지역에는 뽕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이 뽕잎을 이용한 누에를 쳐 비단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늪지에서는 모시와 명주를 재배하였다. 목화솜을 이용한 겨울철 방한복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 때문에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에서는 다양한 의복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의복에 대해서는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

106) (전제훈, 「한국고대신화의 Manatism적 조명」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3년 박사학위 논문, 103 -108 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158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107)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342쪽)을 인용하였다.

108) (전제훈, 『기후변화와 생명문화』, 강원도민일보, 2010, 171 - 172쪽)을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342쪽)에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誌』 109)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의랑(衣朗)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피고 있다.

허리에 두르는 「각띠」는 삼척사투리로 「혁띠」, 「혁때」로 표현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대소변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기저귀」는 삼척사투리로 「지저구」, 「지저귀」로 불리고 있다. 옷이나 옷감 따위를 방망이로 두드려 반드럽게 하는 도구인 「다듬이돌」의 삼척사투리는 「다듬이돌」 또는 「다듬돌」로 표현하고 있다. 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으로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을 댄 「도포」는 「도푸」로 불리고 있다. 여름철 모시적삼옷감인 「명주」의 삼척사투리는 「명지」, 「멩지」라고 불렀다. 잠자리에서 머리에 베는 「베개」의 삼척사투리는 「벼개」 또는 「베개」로 표현하였다.<sup>110)</sup>

할머니와 결혼한 아녀자들이 머리에 꽂는 「비녀」는 삼척사투리로 「비내」, 「비네」로 불렀다. 솜이불과 솜옷에 넣는 「솜」의 삼척사투리는 「속캐」로 표현하고 있다. 아녀자들이 주로 입는 「치마」는 삼척사투리로 「치매」, 「초매」로 불렀다. 어린아이를 등에 업기 위해 쓴 「포대기」의 삼척사투리는 「피대기」, 「이불」로 표현하였다. 남정네들이 외출할 때 주로 입는 「두루마기」의 삼척사투리는 「두르메기」, 「후르매기」, 「후르매」, 「후루매」로 매우 다양하게 불렀다.<sup>111)</sup> 아녀자들이 바느질할 때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골무」의 삼척사투리는 「골미」로 표현하였다. 삼베 짜는 「질쌈」은 삼척사투리로 「질쌈」, 「삼날이」로 불렀다. 옷을 여밀 때 사용하던 「단추」의 삼척사투리는 「단초」라 표현하였다. 허리를 동여매는 「허리띠」는 삼척사투리로 「장동띠」 혹은 「허루띠」로 불렀다. 발을 보호하고 보온을 위해 신는 「버선」의 삼척사투리는 「보산」, 「보선」으로 불렀다.<sup>112)</sup>

물건을 싸는 「보자기」의 삼척사투리는 「보재기」, 「보」, 「보텡이」로 표현하였다. 얼굴이나 몸을 씻기 위해 사용하던 「비누」는 삼척사투리로 「비눌」과 「비늘」로 불렀다. 발에 신는 「양말」의 삼척사투리는 일본말인 「다비」 또는 「대비」나 표준어인 「양말」로 표현했다. 상하의 옷에 붙어있는 「주머니」의 삼척사투리는 「주멍이」, 「개화」, 「개화주머니」로 불렀다. 옷을 짓기 위한 옷감인 「기지」는 삼척사투리로 「개지」, 「천」, 「보체」로 표현하였다.<sup>113)</sup>

## 2)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나?

오십천 주변 삼척사람들은 산간지역인 경우 감자와 옥수수 등 잡곡류를 주로 많이 먹었다. 북평지역을 제외하고는 논이 많지 않아 벼농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밭농사지역에서는 소량의 쌀과 함께 보리, 콩, 조, 기장 등 주로 오곡을 많이 재배하였다. 석회암지대인 삼척지역 특성상 콩과 마늘이 유명하다. 그래서 막장과 두부, 콩국수 등 콩과 관련된 음식이 발달하였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해서는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 114)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식품(食品)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피고 있다.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던 「간장」은 삼척사투리로 「장물」 또는 「지렁」이라고 하였다.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인 「겉두리」의 삼척사투리는 「젠노리」 혹은 「세참」으로 표현하였다. 매운 양념인 「고추」는 삼척사투리로 「꼬추」, 「꼬치」, 「고초」,

10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1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1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1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1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1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꼬초」로 매우 다양하게 불렸다. 겨울을 나기위한 저장음식인 「김장」의 삼척사투리는 「짐장」으로 표현하였다. 알싸한 양념인 「마늘」은 삼척사투리로 「마늘」 또는 「마날」로 불렸다.<sup>115)</sup> 멸건 죽인 「미음」은 삼척사투리로 「미음」, 「미음」, 「땀」으로 표현하였다. 흰떡인 「백편」의 삼척사투리는 「백설기」, 「뭉형이」, 「뭉쟁이」로 불렸다.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국」은 삼척사투리로 「뜨떠구국」, 「붕구레기」로 표현하였다. 쌀가루에 막걸리 효모를 넣어 만든 「증편」은 삼척사투리로 「기정」으로 불렸다.<sup>116)</sup>

방앗간에서 쌀을 찧은 후 생기는 「겨」의 삼척사투리는 「제」, 「쪽제」, 「당제」로 표현하였다. 국수나 국에 얹어먹는 「고명」은 삼척사투리로 「찌명」, 「찌뜨」, 「찌미」로 불렸다. 밀가루를 반죽해 늘려서 찧어 국으로 먹던 「국수」의 삼척사투리는 「국씨」 또는 「국쭈」로 표현하였다. 배추와 무로 해먹던 「김치」는 삼척사투리로 「짐치」, 「짚지」, 「짚쟁이」, 「짚정이」라고 매우 다양하게 불렸다.<sup>117)</sup>

겨울철 별미로 먹던 「메밀-묵」은 삼척사투리로 「메물묵」 또는 「소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의 삼척사투리는 「찬」 또는 「간」이라고 하였다. 밀가루로 많이 해 먹던 「부침개」는 삼척사투리로 「적」, 「노치」라고 불렸다. 고급음식이었던 「약과」의 삼척사투리는 「약패」로 표현하였다. 시루에 키워먹던 「콩나물」은 삼척사투리로 「질금」, 「콩질금」이라고 하였다.<sup>118)</sup>

### 3)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곡물을 먹고 살았나?

그 옛날 논이 많지 않은 오십천 처녀들은 「쌀 서되를 못 먹고 시집간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나쁘게 말하면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변이 석회암지대의 험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오십천 변은 논보다 밭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십천 사람들은 요즘은 건강식으로 회자되는 오곡 위주의 잡곡을 많이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곡물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19)</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곡물(穀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산이 많고 밭이 많아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는 삼척사투리로 「감재」로 표현하였다. 바다에서 나는 해초인 「김」은 삼척사투리로 「짐」으로 불렸다. 봄철 들녘에 많이 나는 「달래」의 삼척사투리는 「달루」, 「달롱」이라 하였다. 혹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을 「달래」로 보기도 한다. 김장과 국 끓일 때 시원한 맛을 내는 「무」는 삼척사투리로 「무꾸」 혹은 「무수」로 표현하였다. 「옥수수」의 삼척사투리는 「옥씩기」 혹은 「강냉이」라고 하였다. 오곡(五穀)<sup>120)</sup> 가운데 하나인 「조」는 삼척사투리로 「조이」 혹은 「저숙」이라고 표현하였다. 「호밀」은 「청밀」이라고 하였다. 「가지」는 삼척사투리로 「가쟁이」, 「아지」, 「아쟁이」, 「가치」라고 다양하게 불렸다.<sup>121)</sup> 쌀 등 곡물의 「껍질」은 삼척사투리로 「껍데기」 혹은 「꺼풀이」라고 하였다. 「기움[시운矢云]」은 삼척사투리로 「짐」으로, 오곡 중에 하나인 「기장」은 「지장」으로 표현하였다. 밀기울 등

11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1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1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1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1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20) 여기서 「오곡(五穀)」은 다섯 가지 중요한 곡식을 말한다.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른다. (『네이버어학사전』 오곡(五穀))

12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기울」의 삼척사투리는 「지울」로, 모를 내기위한 「못자리」는 「모자리」로 불렸다. 「수수」는 삼척사투리로 「취수」로, 메일찝질인 「자감」은 「메물짜갱이」라고 하였다. 누룩으로 술을 빚고 남은 「지게미」는 삼척사투리로 「술짜갱이」 혹은 「밀개」라고 불렸다. 하였다.<sup>122)</sup>

봄철에 들녘에 많이 나는 「냉이」는 삼척사투리로 「나생이」 혹은 「나싱이」라고 하였다. 가을철 상수리나무에 많이 열리는 「도토리」의 삼척사투리는 「굴밤」 혹은 「꿀밤」이라고 불렸다. 누에를 치는 「뽕」은 「뽕」이라고 하였다. 「상추」는 삼척사투리로 「상치」, 「물기」, 「생주」, 「부록」이라고 다양하게 표현 하였다. 말려진 소나무 잎인 「소갈비」의 삼척사투리는 「술갈비」 혹은 「갈비」라고 하였다. 「잔디」는 삼척사투리로 「잔띠」 혹은 「짚뚜」라고 하였다. 김치를 담아 먹는 「배추」의 삼척사투리는 「배차」라고 하였다.<sup>123)</sup>

#### 4)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를 먹고 살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십천은 삼척지역 내 가곡천과 마음천 보다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부인 오십천 하구 정라진과 오분리, 죽서루 일대에는 더욱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십천에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는 삼척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를 달래고 맛의 즐거움과 추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물고기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24)</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어류(魚類)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미꾸러기와 민물고기인 「미꾸라지」. 몸의 길이는 10 - 20센티미터이고 등은 푸른빛을 띤 검은색이다. 배는 흰색이고 검은 점이 많다. 「미꾸라지」 몸은 가늘고 길며 몹시 미끄럽고 수영이 길다. 「미꾸라지」는 논, 개천, 못 따위의 흙 속에 산다. 가끔 수면에 떠올라 공기 호흡을 한다. 「미꾸라지」는 한국, 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이 「미꾸라지」의 삼척사투리는 「미꾸락지」 혹은 「미꾸람지」다. 송엇과의 바닷물고기인 「송어」. 몸의 길이는 60센티미터 정도이고 옆으로 납작하다. 「송어」 등은 잿빛을 띤 청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송어」는 온몸에 뾰뾰한 비늘이 있고 머리는 작는데 폭이 넓다. 「송어」는 담수, 기수, 해수에 사는데 온대와 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송어」는 우리나라 전 연해와 강의 하구에서 잡힌다. 이 「송어」의 삼척사투리는 「모치」다.<sup>125)</sup>

#### 5) 오십천 사람들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나?

오십천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기위해서 반두와 어망[투망]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두」와 「투망」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구입하지 못할 때는 무게가 나가는 큰해머를 이용해서 물속 바위를 두들겨 바위 밑에 쉬거나 잠자고 있는 물고기를 기절시켜서 잡았다. 이 방법은 힘을 활용하는 원시적인 물고기 잡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돌이 튀어 눈이 먼 경우도 있었다. 지렛대를 활용해서 물속 돌을 들썩여 주변에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어구인 반두를 대고 물고기를 잡았다. 해질 무렵에 사발[대접] 입구를 천을 싸서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어 두면 물고기들이 구수한 된장냄새를 용케도 알고 몰려든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은 법을 「사발무지」라고 하였다. 「사발무지」는 일종의 어항과 통발역할을 한 셈이다.

12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12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2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2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메기와 뱀장어를 잡기위해서 낚시를 줄에 메어 바위에 고정 시켜놓고 한밤을 지낸다. 그런 후 아침에 낚시 놓은 돌바위를 찾아 가면 거짓말을 보태어 팔뚝만한 메기와 뱀장어가 걸려 있다. 이런 때면 그날 아침은 메기와 뱀장어 매운탕이 밥상에 올라오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좁은 개울에서는 개울의 한쪽을 막았다. 그런 후에 고추풀을 돌에 찌어서 개울물에 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십천 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인 개울에서는 고추풀을 풀면 고기들이 기절하면 양동이에 담아오기도 하였다. 이 고추풀 물고기 잡이는 동네 청년 몇 명과 그의 줄개들인 다수의 어린아이들이 모여 협동작전을 해야 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였다. 고추풀 외에 초피나무 잎이나 열매를 찌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도랑을 막아서 어린이들은 풀로 밀대를 만들어 단체로 밀면 도랑하구에 반두를 대고 잡는 방법도 있었다. 이 때 반두는 나이든 청년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담당하였다. 약품으로는 싸이나와 수돗물 소독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수돗물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물고기를 매운탕을 끓여 놓으면 소독약 냄새가 나서 먹기에 거부할 때도 있었다. 음식이 귀한 때라 그래도 “맛있다”며 몇 사발씩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1970년대 오십천 변으로 38번국도 공사가 한창일 때는 「깡던지기」라고 하는 고기잡이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은 소량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화약의 도전선이 완전히 타들어 가기 전에 깡을 물에 던져야 했다. 그런데 순발력이 늦은 사람은 잘못해서 손가락이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물고기 잡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오십천은 5월 봄과 가을철 은어잡이도 유명했다. 은어는 바다빙엇과의 민물고기로 몸길이는 20 - 30센티미터이고 모양이 가늘고 길다. 은어는 어두운 녹색 바탕에 배 쪽으로 갈수록 연한 흰색이고 눈 위는 누런색, 위턱은 흰색, 아래턱은 녹색이다. 어릴 때에는 바다에서 지내고 이른 봄에 강을 거슬러 올라 급류에서 살다가 다시 하류로 가 알을 낳는다. 두만강을 제외한 한국의 각 하천과 제주 및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비슷한 말로는 은구어와 은조어라고 한다. 이 은어의 습성은 같은 어종끼리 붙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은어 낚시를 할 때는 씨은어를 한 마리 먼저 확보한 뒤 이 씨은어의 등과 배지느러미를 고리로 고정시킨 뒤 낚시를 달아두고 낚시대를 끌어주면 가까이 있던 은어가 낚시에 걸리는 낚시법이었다. 이 은어낚시방법을 「놀림낚시」라고 한다. 또 낚시도구가 발달하면서 미끼를 사용해서 은어를 잡는 「찌낚시」도 있다. 하지만 오십천을 비롯한 동해안 강에서는 은어의 습성을 활용하는 「놀림낚시」를 선호하고 있다.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인 3월부터 4월까지와 산란기인 9월과 11월경이 은어낚시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다.

여름철이면 「천렵」이라고 하여 다리 밑에 술을 걸고 장작불을 지피고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해먹으며 더위를 이기는 풍습도 있었다. 오십천 변 사람들이 모여 마을잔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닭백숙과 삼겹살구이 등 먹을거리가 많이 생기면서 이 「천렵」도 차츰 사라져 가는 풍습이 되었다.

#### 6) 오십천 하구 바닷가 사람들은 어떤 생선과 해물을 먹고 살았나?

오십천과 바다[동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오십천에서 떠내려 온 다량의 민물 플랑크톤이 좋은 먹잇감을 형성한다. 해초가 무성하게 서식해 바닷고기가 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오십천 하구 바닷가 사람들이 먹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26)</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어류(魚類)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

12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피고 있다.

넙치과와 붕넙치과의 넙치가자미, 동백가자미, 참가자미, 목탁가자미, 줄가자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가자미」. 몸이 납작하여 타원형에 가깝고, 두 눈은 오른쪽에 몰려 붙어 있으며 넙치보다 몸이 작다. 이 「가자미」의 삼척사투리는 「가제미」다. 곤쟁이과의 털곤쟁이, 까막곤쟁이, 민곤쟁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곤쟁이」. 이 「곤쟁이」의 삼척사투리는 「부생우」 혹은 「부새우」다. 도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도미」.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비늘은 둥글고 크다. 「도미」는 연안성의 어류로 바다 밑바닥에 산다. 이 「도미」의 삼척사투리는 「되미」다.<sup>127)</sup>

「우렁쟁이」의 같은 말은 멧갯과 원삭동물인 「멍게」다. 이 「멍게」의 삼척사투리는 「멍게」, 「해웅」, 「행우」다. 전복과의 조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전복」. 전복과의 하나로 껍데기의 길이는 10 - 20센티미터이고 타원형이다. 갈색 또는 푸른빛을 띤 갈색이다. 「전복」은 껍데기 입구는 넓고 곁에 구멍이 줄지어 나 있다. 「전복」은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이 「전복」의 삼척사투리는 「전복」이다. 십각목의 갑각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게」. 두흉부는 윗면이 한 장의 등딱지로 덮여 있고 일곱 마디의 복부가 붙어 있다. 「게」는 다섯 쌍의 발 중에 첫째 발은 집게발로 먹이를 잡는 데 쓴다. 다른 네 쌍의 발은 헤엄치거나 걷는 데 쓴다. 「게」는 바다와 민물에서 살며 독자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개, 해삼 따위에 기생하는 것도 있다. 「게」는 전 세계에 4500여 종이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15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의 삼척사투리는 「기」다.<sup>128)</sup>

도루묵과의 바닷물고기인 「도루묵」. 몸의 길이는 25센티미터 정도이다. 옆으로 편평하다. 등은 누런 갈색이다. 배는 흰 은빛이다. 「도루묵」은 입과 눈이 크며 비늘이 없다. 「도루묵」은 100 - 400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산다. 알을 낳기 위하여 2미터 정도의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 「도루묵」은 한국, 일본, 캄차카 반도 등지에 분포하는 「도루묵」과 비슷한 말은 「목어(木魚)」, 「은어(銀魚)」, 「환맥어」다. 이 「도루묵」의 삼척사투리는 「도루메기」 혹은 「도르메기」다. 멸치과의 바닷물고기인 「멸치」. 몸의 길이는 13센티미터 정도이다. 등은 검푸르고 배는 은빛을 띤 백색이다. 「멸치」 몸은 길고 원통 모양이며 비늘은 둥글둥글하다 「멸치」는 연안 회유성 물고기로 플랑크톤을 주로 먹고 산다. 「멸치」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멸치」의 비슷한 말은 「말자어」, 「멸아(鰯兒)」, 「멸어(蔑魚)」, 「이준(鰯鱒)」, 「추어(鰯魚)」, 「행어(行魚)」다. 이 「멸치」의 삼척사투리는 「메레치」, 「멜치」, 「메리치」다.<sup>129)</sup>

뱀장어과의 민물고기인 「뱀장어」. 몸의 길이는 60센티미터 정도이고 가늘다. 누런색 또는 검은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뱀장어」는 배지느러미가 없고 잔비늘이 피부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뱀장어」는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산란한다. 「뱀장어」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뱀장어」와 비슷한 말은 「만리」, 「만리어(鰻鱺魚)」, 「백선」, 「장어(長魚)」다. 이 「뱀장어」의 삼척사투리는 「뱀장우」다. 송사릿과의 민물고기인 「송사리」. 몸의 길이는 5센티미터 정도이다. 잿빛을 띤 옅은 갈색이다. 「송사리」는 옆구리에 작고 검은 점이 많다. 「송사리」는 눈이 크고 입은 작는데 조금 위로 향해 있다. 「송사리」는 옆줄이 없고 등지느러미는 하나다. 「송사리」는 유전학 실험에 흔히 쓴다. 「송사리」는 호흡이 급하지 않은 연못이나 논, 운천과 염전에 산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송사리」와 비슷한 말은 「소양어」다. 「송사리」의 삼척 사투리는 「양메리」 혹은 「앵메리」다.<sup>130)</sup>

12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12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12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우렁잇과의 고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우렁이」. 껍데기는 원뿔형이며 어두운 녹색이다. 「우렁이」는 무논, 웅덩이 등지에 산다. 이 「우렁이」의 삼척사투리는 「골뽕이」다. 판새류의 연체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조개」. 몸은 양쪽이 같고 좌우로 납작하다. 둘 또는 하나의 껍데기와 외투막으로 덮여 있다. 「조개」는 바닷물에서 사는 것과 민물에서 사는 것이 있다. 이 「조개」의 삼척사투리는 「조잡지」 혹은 「쫓잡지」다.<sup>131)</sup>

## 7)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특산음식을 먹고 살았나?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은 대부분이 석회암지대이다. 이 석회암토양을 테라로사라고 부른다. 이 석회암토양은 해보다 붉은 빛을 띤다. 이 석회암토양은 콩과식물을 심지 않을 경우 굳어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콩과식물은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 가운데 석회암지대라고 할 정도이다. 석회암지대에는 콩을 비롯해 마늘이 잘된다. 콩은 된장, 특히 삼척지역은 석회암지대의 질 좋은 콩으로 간장을 빼지 않고 담아 막장이라고 한다. 콩가루는 그 맛이 고소해 음식의 조미료 역할을 해왔다. 악산으로 비탈밭이 많아 감자 등 밭농사를 주로 했다. 삼척출신으로 삼척과 동해, 태백권 사투리를 채록, 연구하고 있는 이경진<sup>132)</sup> 씨. 그는 그의 저서 『강원도 토종말 산책』<sup>133)</sup> 「토속음식 속의 강원도 방언」에서 삼척지역 특산음식인 「찐 감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960년대 이전 농촌 음식[음식]은 되우 험했습니다. 여름에는 감재[감자]를 툭툭 다져넣은 보리밥, 겨울엔[겨울엔] 짬조밥이 주식이었고요. 영서 산중에선 강냉이밥이 주식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름 저녁상엔 국시[국수]와 찐 감자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방은 감자를 찜 먹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감자를 찜 때 다른 지역에선 사카린이나 당원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영동지방에선 단 것을 넣지 않고 그냥 찜냅니다. 소금을 조금 넣는 경우가 있지만, 단 것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찜 감자는 장에 찍어먹습니다. 찜 감자를 단 것에 찍어먹지 않고 장에 찍어먹는 것도 영동지방의 풍속이라면 풍속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잡취보시기 바랍니다. 고추장이든 막장이든 장에 찍어 잡취 보시란 말씀입니다. 찜 감자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sup>134)</sup>

이경진은 배고픈 시절 음식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겨울철 저녁 뗏거리도 대개 국수였습니다. 좁쌀과 나물이 들어간 나물국죽도 해먹었고 때론 콩죽도 해먹었습니다. 양식[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춘궁기에는 「밀지울[밀기울]」이나 술찌게미[술을 거른 찜찌기]도 먹었습니다. 지금의 가축사료보다 못한 것입니다. 윗세대 분들은 연명을 위해 이런 험한 음식[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13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13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4쪽

132) 이경진(李敬鎭)은 1949년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위축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강원도 지방공무원으로 41년간 근무했다(삼척, 태백, 대관령, 철원, 인제, 강원도청 근무), 2003년 수필가로 등단했다. 강원수필문학, 강원공무원 문학회, 춘천문협, 강원문인협회 회원이다. 저서로는 『삼척지방방언편람』, 『강원도영동남부지방방언』, 『논두렁 면장, 밭두렁 면장』이 있다.

133)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134)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199쪽

데 그 시절 주로 먹었던 칼국시[칼국수]는 지방에 따라 재료가 다릅니다. 춘천지방은 맨 밀갈그[밀가루]로 멥근[만든] 국시[국수]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권 지방과 영서내륙지역인 정선, 평창 등지에선 말가리[밀가루]에다 콩갈글[콩가루를] 섞은 국수를 해 먹었습니다.』 135)

이경진은 「콩국시[국수]」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콩갈국시는 이렇게 만듭니다. 우선 밀갈그[밀가루를] 80퍼센트 정도에다 콩가리[콩가루] 20퍼센트 정도를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배합비율은 가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치대면 노란 색깔의 반죽이 완성됩니다. 안반에 올려놓고 홍두깨로 밍니다. 간간히 밀갈글 뿌리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홍두깨로 한 번 더 늘리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큰 두리반 형태의 국시판이 만들어 집니다. 다 늘긴[늘린] 국수판은 척척 접어서 칼로 썬니다. 솥에는 이미 물이 끓고 있습니다. 소두뱅이[솔뚜껑]를 열고 썰어둔 국시[국수]를 살살 퍼 넣습니다. 송송 썬 애호박과 파도 넣습니다.』 136)

이경진은 「콩국시[국수]」가 「가수기」가 된 사연도 말해 주고 있다.

『다시 물이 끓어 김이 나면 소두뱅이[솔뚜껑]를 엽니다.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콩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자로 국수를 풀니다. 국수 위에는 깨보생이[깨소금]을 엽니다. 백두대간 영 넘어 하장, 정선 평창지역사람들은 이 콩가리국시[콩가루국수]를 「가수기」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취기」라고도 합니다. 「가수기」란 말은 「국수에 콩가루를 넣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자로 가숙(加菽)이라고 하는데, 「더할 가(加)자에 콩 숙(菽)자」를 쓴 유식한 말입니다. 「가수기」는 「말갈기[밀가루]에다 콩갈글[콩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끓인 손칼국시[손칼국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시[국수] 국물은 막장을 풀어 넣은 것이 일반적이나 때론 소금물이나 지령[간장]을 넣고 맑게 끓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수기」 국수는 모내기나 갈풀 썰 때도 참으로 해먹었습니다.』 137)

이경진은 국수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이 서린 「국시꼬랑대기[반죽을 늘린 국수뽕지]」 이야기도 알뜰히 챙겨 들려주고 있다.

『예전, 어머니가 국시[국수]를 썰 때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국수 꼬랑대기를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국시[국수]를 썰던 어머니, 꼬랑대기를 몽텅 짱카[잘라]줍니다. 얼른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아궁지[아궁이] 불에 올려놓습니다. 한두 번 뒤집으면 붕그렇게[붕긱하게] 일어나면서 구워 집니다. 이 국수꼬랑대기는 담백하고 수수합니다. 제과회사에서 만든 과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건강식품입니다.』 138)

음력으로 1961년 9월 3일 생인 필자[전제훈]는 1949년생인 이경진의 콩국수와 「국시꼬랑대

135)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200쪽

136)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200쪽

137)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200 - 201쪽

138) 이경진 지음, 『강원도 토종말 산책』, 예문사, 2015, 202쪽

기」 이야기에 공감한다. 필자의 어머니도 가끔씩 저녁 찬 꺼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콩국수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이다. 2남 3녀인 필자의 집안에서 형님과 누님들은 콩국수, 그것도 하루 지나서 통통 불은 콩국수를 그렇게 좋아했다. 하지만 필자는 콩국수를 잘 먹지 않았다. 그래서 국시[국수]를 늘리던 어머님께서 「국시꼬랑대기」 를 듬뿍 때주던 추억이 떠오른다. 필자는 이 「국시꼬랑대기」 를 부엌 장작불에 넣고 「주머니 저라, 방구 저라」 라는 주문을 외웠던 기억이 새롭다. 「국시꼬랑대기」 가 주문처럼 한없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대하였다. 그때의 추억이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은 그리운 어머님 모습과 함께 추억으로 떠오른다.

#### 8)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그릇과 부엌도구를 사용하였나?

음식을 받아먹는 「그릇」 을 통털어 삼척사투리로 「기명(器皿)」 라고 표현하였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릇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39)</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식기(食器)에 잘 나타나 있다.

아주 크고 우묵한 술인 「가마」 는 삼척사투리로 「가매」 혹은 「가매술」 이라고 하였다. 음식을 끓이거나 삶는 데 쓰는 용구의 하나인 「냄비」 의 삼척사투리는 「남비」 혹은 「장개비」 라고 불렀다. 술의 아가리를 덮는 「술뚜껑」 은 「소드벙이」 혹은 「소뎡이」 라고 표현하였다.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벌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오젓물을 입혀 다시 구운 그릇인 「오지그릇」 은 삼척사투리로 「오지그릇」 이라고 불렀다.<sup>140)</sup>

사기로 만든, 아가리가 오목한 바리인 「옴파리」 는 삼척사투리로 「오바리」 혹은 「옴바리」 라고 하였다. 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로 가는 대오리나 싸리 따위로 곁어서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만든 「조리(箒籬)」 의 삼척사투리는 「중오리」 혹은 「조구리」 라고 하였다. 작은 바가지인 「쪽박」 은 「쪽베기」 , 「쪽바가지」 , 「쪽빼기」 라고 표현하였다. 쇠죽을 푸는 바가지인 「쇠죽바가지」 는 삼척사투리로 「구박」 , 「함지」 라고 하였다.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인 「다야」 의 삼척사투리는 「양푼」 혹은 「양제기」 라고 불렀다.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인 「뚝베기」 는 삼척사투리로 「질뚜가리」 라고 하였다. 놋쇠로 만든 밥그릇인 「주발(周鉢) 뚜껑」 은 삼척사투리로 「복지」 혹은 「복찌개」 라고 표현하였다.<sup>141)</sup>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으로 모양이 자배기 같고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시루」 는 삼척사투리로 「시르」 , 「실기」 , 「실구」 라고 하였다.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으로 놋쇠나 양은, 사기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 「요강」 의 삼척사투리는 「오강」 이라고 불렀다.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인 「자배기」 는 삼척사투리로 「자배기」 혹은 「자박지」 라고 하였다. 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인 「함지박」 의 삼척사투리는 「함지」 혹은 「함박」 이라고 불렀다.<sup>142)</sup>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에 밑에 받치는 것으로 두꺼운 나무토막이나 널조각, 플라스틱 따위로 만든 「도마」 는 삼척사투리로 「도매」 라고 표현하였다. 밥을 푸는 도구로 나무, 놋쇠,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따위로 만들며 손가락과 모양이 비슷한 「밥주걱」 은 삼척사투리로 「밥주벽」 이라고 하였다.

13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4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4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14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0쪽

### 9) 오십천 사람들은 무슨 꽃과 과일, 채소를 즐겼나?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은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해 꽃 색깔이 화사하고 포도 등 과일이 당도가 높아 맛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과 즐겨 먹던 과일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43)</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꽃, 과일[화과 花果]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개암나무 열매인 「개암」은 삼척사투리로 「깨끔」으로 표현하였다. 「짜리」는 「째리」로, 「마름」은 「말맹이」 혹은 「마랭이」로 불렀다. 「모과」는 「모개」, 「모괘」, 「모가」로 표현하였다. 「사과」의 삼척사투리는 「사괘」, 「사개」, 「사가」로 표현하였다. 「포도」는 「포두」라고 하였다.<sup>144)</sup> 고욤나무 열매인 「고욤」은 삼척사투리로 「고얌」이라고 하였다. 「딸기」는 「딸구」, 「딸루」, 「따르」, 「딸이」[ㄱ 탈락]이라고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머루」의 삼척사투리는 「머구」, 「머리」, 「머르」[ㄱ 탈락]으로 표현하였다. 「복숭아」는 「복쌍」 혹은 「복숭아」로 불렀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오두」로, 자두나무 열매인 「오얏」은 삼척사투리로 「꽤」로 표현하였다. 「탱자」는 「탱주」로, 완전히 익은 감인 「홍시」의 삼척사투리는 「홍실」로 불렀다.<sup>145)</sup> 채소로 「오이」는 삼척사투리로 「물외」 혹은 「외」로 불렀다. 특산품으로 「인삼」은 삼척사투리로 「심」 혹은 「삼」으로 불렀다.

### 10) 오십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나?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의 가옥은 지붕을 잇는 재료에 따라 참나무 껍질로 이은 굴피집, 소나무 등 널빤지로 이은 너와집, 껍질 벗긴 삼대로 잇는 저릅집, 짚으로 이으면 초가집 등으로 나누었다. 물론 기와를 지붕에 얹으면 기와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슬레이트집과 루핑집, 양철지붕집, 슬래브집 등 시대에 따라, 지붕 없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46)</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가옥(家屋)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굴피집과 너와집 안방에 난방과 불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 「코클」은 삼척사투리로 「코쿠리」 또는 「콜쿠리」이라 하였다. 비탈진 곳의 가장자리 또는 초가의 처마 끝의 「기스락」의 삼척사투리는 「거시락」, 「지시장」, 「지스장」이라고 불렀다. 음식이나 난방을 위해 불을 지필 때 나는 「내」<sup>147)</sup>는 삼척사투리로 「내加里」, 「영기」, 「내구리」라고 표현하였다. 물건을 넣어놓는 창고의 일종인 「괘」은 삼척사투리로 「고방[고방, 고창]」이라 불렀다.<sup>148)</sup>

대변과 소변을 보는 화장실인 「뒷간」은 삼척사투리로 「정낭」, 「뒷간」, 「칙간」이라고 하였다. 밀고 닫는 문인 「미단이」의 삼척사투리는 「일창」, 「장지」라고 불렀다. 음식을 해먹는 「부엌」은 삼척사투리로 「벽」 또는 「정지」라고 표현하였다. 싸리나무로 만든 문인 「사립문」은 「바жат문」이라고 하였다. 지붕을 엮기 위한 「서까래」는 삼척사투리로 「세까래」, 「석까래」라고 불렀다. 소 등을 끼우기 위한 「외양간」의 삼척사투리는 「마구」, 「마고」라고 하였다. 농기구 등을

14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4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4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3쪽

14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47) 여기서 「내」는 물건이 탈 때에 일어나는 부엌고 매운 기운을 말한다. 사용례로 매캐한 「내」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다. 「내」를 마시다. 「내」 또는 「연기」에 대한 속담은 「내 마신 고양이 상」 있다. 이는 독살이 나서 얼굴을 표독하게 찡그림을 비유하는 말이다. 또 「내」는 「냄새」의 준말이다. 용례로 밭타는 내가 코를 찌른다. 향긋한 내를 풍기다. (『네이버어학사전』 내)

14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넣어두기 위한 「헛간」은 삼척사투리로 「혁간」 또는 「혁간」이라고 하였다.<sup>149)</sup> 집 「기둥」은 삼척사투리로 「지둥」이라고 하였다. 지붕에 올리는 「기와」의 삼척사투리는 「지와」 또는 「재」라고 불렀다.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한 「도장방」은 삼척사투리로 「도장」 혹은 「뒷방」이라고 하였다. 집 뒷마당인 「뒤걸」의 삼척사투리는 「똥」 혹은 「뒷마당」이라고 표현하였다. 방과 방사이에 있는 「마루」는 삼척사투리로 「마룽」이라고 하였다. 바람을 막기 위한 「바람벽」의 삼척사투리는 「베람씩」, 「바람백」, 「벼름백」이라고 불렀다.<sup>150)</sup> 불을 지피기 위해 설치한 「부엌아궁이」의 삼척사투리는 「버강지」, 「벽아구리」, 「벽아궁지」라고 하였다. 방과 방사이의 「사잇방」은 삼척사투리로 「상방」 혹은 「셋방」이라고 표현하였다.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 방안과 부엌에 설치한 「시렁」의 삼척사투리는 「실공」, 「실경[ ㄱ 탈락]」으로 불렀다. 초가집 지붕을 잇는 「이엉」은 삼척사투리로 「영」, 「영마람」, 「용마람」이라고 하였다. 집 「안방」의 삼척사투리는 「아리방」, 「아랫방」이라고 표현하였다.<sup>151)</sup>

### 11) 오십천 사람들은 어떤 생활용구를 사용하였나?

산악지형으로 다양한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삼척지역에서는 이러한 나무들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구를 사용하였다. 김칫독은 소나무를 활용했다. 단단한 것을 요구하는 도끼자루는 물푸레나무나 박달나무 등을 활용하였다. 땅을 파는 농기구는 귀하지만 쇠[철鐵] 등 금속을 사용하였다. 마을마다 대장간이 있어 농한기에는 농기구를 버리곤 하였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생활용구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52)</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기구(器具)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웃감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는 삼척사투리로 「가왜」, 「가새」, 「까깨」, 「가우」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 생활과의 밀접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물건을 걸거나 끌 때 사용하는 「갈퀴」의 삼척사투리는 「깍지」, 「깍정이」로 부르고 있다. 널빤지로 사각의 패를 짠 「고리짜」는 삼척사투리로 「코리짜」라고 표현하고 있다. 갈퀴와 비슷한 형태인 「갈고랑이」의 삼척사투리는 「갈구랭이」, 「갈구리」, 「갈구리」로 불렀다.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은 삼척사투리로 「밍경」, 「색경」, 「멩경」이라고 하였다. 부엌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는 데 사용하는 기구[ ㄱ] 형태의 「고무래」의 삼척사투리는 「곰배」라고 표현하였다.<sup>153)</sup>

소를 매는 밧줄인 「고삐」는 삼척사투리로 「고뽕이」로 표현하였다. 땅을 파는 농기구인 「괘이」의 삼척사투리는 「괘이」로, 나무널판지로 만든 상자인 「궤」는 「괴」로 불렀다. 물건을 동여매는 「끈」은 삼척사투리로 「나끈」, 「끈내기」, 「끈나풀」, 「내끈」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동물을 잡는 「땃」은 삼척사투리로 「옹노」, 「똥」, 「홀랑」으로 불렀다. 짚으로 만들어 비울 때 입는 「도롱이」는 삼척사투리로 「우장」, 「뉘역」, 「도랭이」라 하였다. 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 지은 「둥우리」의 삼척사투리는 「둥지리」, 「똥지리」라 불렀다. 소가 일을 할 때 풀을 뜯어먹지 못하게 입에 썬우는 「멍애」는 삼척사투리로 「몽애」 혹은 「몽왜」라 하였다.<sup>154)</sup> 벼틀이나 가마니틀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로 대오리로 만들어 베나 가마니의 날을 고르며 씨를 쳐서 짜는 구실을 하는 「바디」는 삼척사투리로 「바두」라고 하였다. 지붕 등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기구인 「사닥다리」의 삼척사투리는 「사다리」, 「새다리」라고 표현하였다. 둥근

14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5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5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5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5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1쪽  
 15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쇠 테두리에 발이 세 개 달린 기구로 화로(火爐)에 놓고 주전자, 냄비, 작은 솥, 번철 따위를 올려놓고 음식을 끓이는 데 쓰는 「삼발이」의 삼척사투리는 「삼발쇠」, 「다리쇠」로 불렀다. 눈에 묘를 심을 때 흙을 고르는 「씨레」는 삼척사투리로 「스레」, 「쓰래」라 하였다. 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로 토막나무에 두 개의 기둥을 박고 그 사이에 둥근 나무 두 개를 끼워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처럼 마주 돌아가면서 목화의 씨가 빠지게 하는 「씨아」의 삼척사투리는 「썰지」 혹은 「메내틀」이라고 하였다.<sup>155)</sup>

빛살이 굵고 성긴 큰 빗인 「얼레빗」은 삼척사투리로 「얼개빗」이라 하였다. 주로 잔털이나 가시 따위를 뽑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조그마한 기구인 「족집게」의 삼척사투리는 「종집게」 혹은 「쪽지개」라 표현하였다.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깎을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로 끝은 뾰족하고 위는 대개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 「호미」는 삼척사투리로 「호맹이」 혹은 「호무」라고 불렀다. 얇은 나무나 널빤지를 둥글게 휘어 만든 테로, 이 테에 찻불을 메워 체를 만드는 「찻바퀴」의 삼척사투리는 「찻바꾸」 혹은 「켓바꾸」라 하였다.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인 「광주리」는 삼척사투리로 「광지리」 혹은 「강지리」라 불렀다. 소나 말 따위의 가죽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으로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 「구유」의 삼척사투리는 「구영」, 「구용」, 「궁이」라고 표현하였다.<sup>156)</sup>

민속놀이의 하나로 큰 나무의 가지나, 두 기둥 사이로 가로지른 막대에 두 가닥의 줄을 매어 늘이고, 줄의 맨 아래에 밀신개를 걸쳐 놓고 올라서서 몸을 움직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그네」는 삼척사투리로 「그늘」, 「그놈」, 「구늘」, 「춘치니」라고 하였다. 널뛰기할 때에 쓰는 널빤지인 「널」의 삼척사투리는 「늘」, 「널빤지」, 「널빤지」라 표현하였다. 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의 하나로 썰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 「도끼」는 삼척사투리로 「도꾸」라고 불렀다.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으로 짚이나 천을 틀어서 만든 「뜨리」의 삼척사투리는 「또아리」, 「또바리」, 「따바리[바탈락]」이라 하였다. 단단한 물건이나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리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으로 모양은 마치와 비슷하나 훨씬 크고 무거우며 자루 「마치」는 삼척사투리로 「마치」라고 불렀다.<sup>157)</sup>

돌리거나 굴리려고 테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물건인 「바퀴」는 삼척사투리로 「바꾸」 혹은 「바꾸」라고 표현하였다. 두 개의 나뭇가지나 수숫대 또는 땃가지의 한끝을 동여매어 집게처럼 만들고 그 틈에 벼 이삭을 넣고 벼의 알을 훑는 농기구인 「벼훑이[벼훑치]」의 삼척사투리는 「찍개」 혹은 「쩍개」라고 하였다.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로 가는 싸리나 대오리, 첩, 짚, 새끼 따위로 만드는데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며 좌우 양편은 울리지게 엮어서 만든 「삼태기」는 삼척사투리로 「산테미」 혹은 「산테기」라고 하였다.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 것으로 황린(黃磷), 적린(赤磷), 무린(無磷)의 「성냥」의 삼척사투리는 「다황」 혹은 「당황」이라 불렀다.<sup>158)</sup>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 구워 낸 검은 덩어리의 연료인 「숯」은 삼척사투리로 「숯구멍」, 「숙꾸」, 「수경」이라고 하였다. 연줄, 낚시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로 나무 기둥의 설주를 두 개나

15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15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15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15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네 개 또는 여섯 개로 짜서 맞추고 가운데에 자루를 박아 만든 「얼레」의 삼척사투리는 「돌게지」 혹은 「돌게시」라고 불렀다. 속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형질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인 「자루[대의大衣]」는 삼척사투리로 「잘기」, 「자르」, 「부대」, 「푸대」라고 하였다.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받거나 거르는 데 쓰는 기구로 얇은 나무나 널빤지로 만든 쳇바퀴에 말총, 명주실, 철사 따위로 그물 모양의 쳇불을 씌워 나무뿔이나 대못을 박아 고정하여 만든 「체」의 삼척사투리는 「채」 혹은 「얼개미」라고 하였다. 밥을 푸거나 음식을 저어 섞는 데 쓰는 도구인 「주걱」의 삼척사투리는 「빡죽」이라고 표현하였다.<sup>159)</sup>

## VI. 오십천 사람기질

### 1) 「드세다」는 「째물시럽다」의 삼척사투리 어원은 「쌈할시럽다」?

삼척, 특히 삼척 해안가나 오십천 사람들은 기질(氣質)로 「째물시럽다」는 삼척사투리 한마디로 통한다. 삼척출신으로 삼척, 동해, 태백권 사투리를 채록, 연구하는 이경진 씨는 그의 저서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sup>160)</sup>에서 「째물시럽다」에 대해서 「드세다」라고 간단히 설명해 놓고 있다. 그 사용례로는 『동해안 처녀들은 째물시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지만[듣지만] 대부분 생활력이 강하고 알뜰하기 때문에 시집을 가서도 잘사는 경우가 많다.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예자[여자]들이 말이지. 그런데 내가보니까 정선 산중 처녀들도 생활력이 강해 살림을 참 잘하다와[잘합디다]』<sup>161)</sup>

「드세다」는 삼척사투리로 「째물시럽다」 외에도 「째무세[드세, 사나워]」도 살펴볼 수 있다. 「째무세」의 사용례로는 『저 부재 집[부자 집] 영감티기는[영감은] 너무 째무세 머슴꾼들을 심하게 일을 시킨단다. 그래서 머슴꾼들이 불전질[불어있지] 못한다와[못한다오]』<sup>162)</sup>

「드세다, 사납다」는 삼척사투리로 「째무시다」도 있다. 그 사용례는 『『바탕이 성실한 사람은 늘쌈[항상] 편안하고 이역[이익]을 보지만, 방탕하고 째무신 자는 언제나 위태롭고 해를 입는다』는 옛말이 있더군』<sup>163)</sup>

「드세어」란 삼척사투리로 「째물시루와」도 있다. 그 사용례로는 『저 집 지집년은[계집년은] 너무 째물시루와 인심을 잃었다』<sup>164)</sup> 「사납다」의 삼척사투리로 「짜무릅다」도 있다. 「짜무릅다」의 활용례로 『그 집 개는 우타[어떻게] 짜무루운지 사람만 보면 되게[매우] 짫테야[짫터구나]. 아매[아마] 췌[주인]을 닮아서 그랄거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좀 못 됐나 말이야.』<sup>165)</sup>

「싸움」의 삼척사투리는 「짜므」이다. 그 활용례로는 『우리 동네에서 짜므 췌[제일] 잘하는 아는[아이는] 근야다[그 녀석이다]』<sup>166)</sup> 「싸움, 싸움질」의 삼척사투리는 「싸움박질」이다. 그 활용례로는 『싸움질 잘하는 놈은 깡패 밖에 더 되나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다.』<sup>167)</sup>

「싸움, 쌈질」의 삼척사투리로 「쌈박질」이 있다. 그 활용 예로는 『쌈박질 잘하는 아[아이] 얼구

15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92쪽

160)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161)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30쪽

162)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30쪽

163)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30쪽

164)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30쪽

165)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28쪽

166)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28쪽

167)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28쪽



리[얼굴]에는 상처가 많다. 그 얘기는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 없다는 얘기와 통한다.』<sup>168)</sup>

오십천 변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출신인 김남성(70)<sup>169)</sup>은 『오십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동해시에 정착하면서도 신동초등학교 동창회를 한 달도 그르지 않고 즐기치게 합니다. 그래서 삼척사투리로 「쌈물시루운[사나운]」 모습을 보여 남들로부터 단합이 잘된다고 부러움을 삽니다. 오십천 변 고향 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향우회보다 높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오십천이 끝나는 삼척시 정라진 사람들도 「쌈물시럽기」로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정라진의 「쌈물시러운[사나운]」 기질은 「나릿가[나룻가]」 기질과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라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전 3대 친목모임인 호남향우회, 해병전우회, 고대 총동문회보다 더 단합력을 과시해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필자는 「드세다」는 삼척사투리로 「쌈물시럽다」를 고구려 고어인 「쌈할시럽다」와 연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견강부회(牽強附會)니, 논리의 비약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 「쌈할시럽다」는 일본의 무사인 「사무라이」의 어원인 「쌈할아이」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삼척과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고대사회에 한때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삼척지역 고구려 고어는 삼척시 원덕읍 노곡4리 비화마을의 미역바위 「앞부리깨바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곳 「앞부리깨바우」는 「앞」은 마을 앞 등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부리깨」는 삼척해안에서 바위를 「버럭」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버럭」이 「부리」로부터 음역된 것으로 보인다. 「부리」는 「소부리」와 같이 마을 안[속]으로 중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앞부리깨바우」를 풀이하면 「마을 앞 바위」라고 할 수 있다.<sup>170)</sup> 「버럭」이라는 지명은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해안가에도 있다. 이곳 장호리에서는 「버럭깨」라고 한다. 「버럭」은 터널 굴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바위덩이를 「버럭」이라고 한다. 「버럭」은 「바위덩이」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깨」는 「어디어디쯤, 누구」 등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는 「바위」의 삼척사투리다.<sup>171)</sup>

## 2) 산간문화의 순박함과 해안지대의 「췌」의식 동시에 작용?

삼척출신인 이창식(60)<sup>172)</sup>은 그의 저서 『삼척지역의 민속과 문화』<sup>173)</sup>에서 삼척사람들의 의식에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삼척사람 의식의 본바탕은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간 문화를 빚은 순박한 의식과 해안지대의 「췌」의식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중앙문화 지향의 선비의식의 표면에는 나타나지만 지역문화를 주도하는 생각은 「촌사람」의 끈질긴 집념과 보수적인 「췌」기질이라고 보여진다. 그만큼

168)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229쪽

169) 김남성 씨는 1947년 10월 5일 삼척군 신기면 신기리 출신으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강원도 회장을 역임했다. 해병대전우회 동해지회 9 - 12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해양동우회 고문과 해병대전우회 동해지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70) 이승철 외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강원도환동해본부, 2016, 228쪽

171) (이승철 외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강원도환동해본부, 2016, 228쪽) 각주를 인용하였다.

172) 이창식(李昌植)은 1957년 삼척 맹방에서 출생하였다. 삼척고,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동국대, 강원대, 대전대 국어국문학과 강사를 지냈다. 한국민속학회, 한국시가학회 이사, 충북학연구소 운영위원, 두타문화회 동인(시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173)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양반의식과 민중의식이 여느 지역처럼 구별되는 것도 아니면서 강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삼척사람다운 집착의 인성을 지니고 있다. 통시적인 역사자료에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으나 공시적인 민속문화 자원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74)

이창식은 삼척사람들의 「썰」 기질과 「순박한」 기질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흔히 삼척 영서지역에서는 삼척 영동지역을 「해부 사는 것들[해부놈들]」 이라고 하고 삼척영동지역에서는 삼척 영서지역을 「영세[영서] 사는 것들[영세놈들]」 이라고 한다. 여느 지역처럼 이 자체가 상대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 이르지 않는다. 이는 서로 깎아내리기 표현이지만 삼척사람들의 의식 저변에는 공시적인 계층정보보다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중성이 있다는 뜻이다. 곧 산간문화의 보수적인 기질과 해안문화의 개방적인 근성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두 의식은 때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변증법적으로 극복되어 심할 때는 대립되기도 한다.』 175)

이창식은 『택리지』 나 『동국여지승람』 또는 『척주지』 를 통해서도 삼척사람들의 의식세계를 살펴보고 있다.

『생산 활동에서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이기에 자연 순응의 삶을 지향하는 데는 좋다고 하였다. 삼척사람들은 일찍부터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독특한 의식을 지녔고 이러한 의식은 민속자원에 보이는 한국문화의 원초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문화적인 인자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관념은 아직도 강고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화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이 강릉문화권과 비슷하면서 강릉문화권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것은 이런 의식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176)

필자는 이에 대해서 산간문화의 순박함과 해안지대의 「썰」 의식에 대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십천이라고 보고 있다. 오십천은 태백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강변을 따라 영동선철도와 38번국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오십천 하구[정라진]에서 배를 저어 오십천 중류인 신기로 올라갔다. 선질꾼들은 지게에 짐을 지고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미역, 생선 등을 날랐다. 이들은 느릅령[유령]을 넘어 황지와 장성 등 산간지역으로 해산물을 나르며 그곳에서 생산되는 잡곡 등 특산물과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하였다. 지금도 태백시 통동 느릅령에는 산령각에서 봄철 산령제를 지내고 있어 당시 선질꾼들의 노고를 달래주고 있다. 이곳 신기 오십천 나룻가[나룻가의 삼척사투리] 파시가 열려 산촌과 해안의 물건들이 교환되는 나룻가[나룻가] 장이 열렸다.<sup>177)</sup> 이 오십천 변 나룻가[나룻가] 장은 산촌과 해안 생산물을 물물 교환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소통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십천이라고 할 수

174)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38쪽

175)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38 - 39쪽

176)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39쪽

177) (張正龍, 『三陟郡地名由來誌』, 三陟郡, 1994, 281쪽)에 (『신기면은 일제강점기에는 헌병과건소가 있었고 신기시장이 있을 정도로 번창한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신기역과 버스정류장만 남아있다.』 라고 하였다.)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출신인 김남성(70)씨는 『자신의 어머니께서는 강릉을 출발해 부산에 이르는 총연장 30.936킬로미터의 철도가 1962년 오십천을 따라 개설되면서 소달면 고사리장을 보거나, 기차를 타고 묵호항역에 내려 묵호시장에서 콩을 비롯해 신기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팔았다.』 고 말했다.

있다. 오십천은 하천이면서 물물교환은 물론 삼척사람들의 의식이 소통되는 가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십천 변 사람들은 산촌의 순박함과 해안의 「췌」 의식을 동시에 지녔다고 하겠다. 그래서 오십천사람들의 기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하겠다.

### 3) 별명과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삼척 오십천 사람기질론은?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 사람들의 「췌물시러운[드센]」 기질론(氣質論)은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이름 대신 부르는 별명은 이러한 기질론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여기서 별명(別名)은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을 말한다. 삼척지역에 근래에 많이 회자된 이야기는 「심방중 할머니」에 대한 민담이다. 여기서 민담(民譚)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뜻한다. 이 이야기는 흔히 판소리 심청전처럼 심봉사[심학규] 이야기종류로 알고 있다. 소식이 어두운 사람을 일러 『심방중이구만[깜깜 하구만]』 하는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나 삼척 오십천 변 「심방중 할머니」 이야기의 주제는 심봉사 이야기와는 다르다. 「심방중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심방중 할머니」는 보름달이 뜬 한밤중에 오십천 변 사대광장 자갈밭에 보름달을 불빛삼아 일구었다. 호미자루가 빠지고 호미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낮이나 밤이나 사대장광 자갈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었다. 동이에 똥을 이고 거름을 주어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심방중 할머니」의 꿈은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보름달빛을 불빛삼아 열심히 일한 「심방중 할머니」는 자식들을 성공시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78)

이처럼 「심방중 할머니」의 기질은 「췌물시럽기[드세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삼척사람들의 기질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삼척사람들의 기질이 「췌물시럽기[드세기]」로는 「아리랑고개 빨간모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아리랑고개 빨간모자」는 해병대출신이었다. 그는 기질도 드세지만, 해병대 출신답게 평소에 빨간색 팔각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친구들을 만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운 뒤 삼척군 삼척읍 성내리 6번지[지금은 삼척시 성내동] 집으로 돌아오면, 『아리랑고개 빨간모자가 떴다』며 동네사람들이 별별 말 정도였다고 한다. 이 「췌물시럽기[드세기]」로 이름난 「아리랑고개 빨간모자」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하루는 「아리랑고개 빨간모자」가 친구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냉방이었다. 살을 에는 한 겨울철이었지만, 「아리랑고개 빨간모자」는 방바닥을 파고 온돌 고래를 다시 놓기 시작했다. 겨울철 바람이 췌췌 불어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는데도 「아리랑고개 빨간모자」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아리랑고개 빨간모자」는 그 한겨울 추위를 물리치고 온돌 고래를 다시 고쳐서 불을 지폈다』 179)

「아리랑고개 빨간모자」는 그 「췌물시러운[드센]」 기질로 온돌 고래를 고쳐 한 겨울 기운을 한여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척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부수석을 지낸 이원중 씨. 그의 별명은 「핏대」였다. 목소리 크고 말할 때 열을 잘 낸다 하다 붙여진 별명이다. 「핏대」를 고상하게 한자로 표현하면 「혈죽(血竹)」이다.

178) 필자가 삼척지역에서 직접 채록하였다.

179) 필자가 삼척지역에서 직접 채록하였다.

이원중의 별명인 「핏대[혈죽(血竹)]」는 삼척사람의 기질을 별명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셈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초, 김현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즈음에 가서야 여론에 밀려 경북고와 고대 세력의 중심이던 이원중 씨를 잘랐다. 이 수석은 별명이 「핏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핏대를 올린 장본인이었다. 기자들을 그를 「혈죽(血竹) 선생」<sup>180)</sup>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사람들은 한 번 화가 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이야기처럼 달빛을 불빛 삼아 자갈밭을 일구는 기질과 아무리 추운 한 겨울철이라고 해도 온돌 고래를 다시 놓는 「쌌물시룬[드센]」 기질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무너져 가는 정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역시 그 「쌌물시룬[드센]」 기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4) 오십천 사람들은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기질은 내면적이라면 몸은 외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오십천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궁금하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몸에 대한 생각은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sup>181)</sup>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신체(身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인 「가르마」의 삼척사투리는 「가름배」 또는 「바름배」라고 하였다.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인 「가슴」은 「가심」이라고 표현하였다. 볼기의 아랫부분으로 앉으면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부분인 「궁둥이」는 삼척사투리로 「궁뎡이」, 「엉뎡이」, 「응뎡이」라고 하였다. 기도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숨소리를 터트려 내는 「기침」의 삼척사투리는 「지침」 혹은 「지춤」이라고 하였다.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붙은 것인 「눈곱」은 삼척사투리로 「눈찌비」 혹은 「눈깨비」라고 표현하였다.<sup>182)</sup>

머리의 뒷부분인 「뒤통수」는 삼척사투리로 「뒤통생이」, 「뒤통수」, 「뒤꿀」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인 「등」의 삼척사투리는 「등어리」, 「등때기」, 「덩어리」라고 하였다. 머리털의 날개인 「머리카락」은 삼척사투리로 「머리쟁이」 혹은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하였다. 넓다리(넓적다리)와 정강이의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인 「무릎」의 삼척사투리는 「무릎뎡이」, 「푸릅뎡이」, 「고뎡이」라고 하였다.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복사뼈」의 삼척사투리는 「복쌍씨」 혹은 「복상뼈」라고 불렀다.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인 「뺨」은 삼척사투리로 「뺨」, 「귀뎡이」, 「뺨라지」, 「귀싸대기」라고 하였다.<sup>183)</sup> 「뺨」에 대한 삼척사투리는 매우 다양하다.

피부 위에 날알만 하게 도도룩하고 납작하게 돋은 반질반질한 군살인 「사마귀」는 삼척사투리로 「사마구」 혹은 「사마귀」라고 하였다.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인 「손목」의 삼척사투리는 「손목쟁이」, 혹은 「손목쟁이」라고 불렀다.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쓸

180) 출처: <http://niswhistleblower.tistory.com/53>

18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8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83)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개」는 삼척사투리로 「쓰레」 혹은 「썰개」라고 표현하였다.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인 「오금」의 삼척사투리는 「오금뽕이」라고 하였다. 입술에서 후두(喉頭)까지의 부분으로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인 「입」은 삼척사투리로 「아가리」, 「아구리」, 「주뎡이」라고 표현하였다. 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인 「정강이」의 삼척사투리는 「정갱이」 혹은 「장갱이」라고 불렀다. 입 속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인 「침」은 삼척사투리로 「츄」이라고 하였다.<sup>184)</sup>

사람이나 동물의 갈빗대 아래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잘록한 부분인 「허리」는 삼척사투리로 「장뎡이」 혹은 「잔뎡이」라고 표현하였다.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작용인 「힘」의 삼척사투리는 「심」, 「기운」, 「맥」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부분인 「가랑이」의 삼척사투리는 「가랭이」, 「가달뽕이」, 「가달뽕이」라고 불렀다. 양편 팔 밑의 오목한 곳인 「겨드랑이」의 삼척사투리는 「저드랭이」 혹은 「쭈지」라고 하였다. 귓구멍 속에 낀 때인 「귀지」는 삼척사투리로 「귀챙이」라고 표현하였다. 다리에서 무릎 관절 위의 부분인 「넓적다리」의 삼척사투리는 「심다리」 혹은 「신다리」라고 불렀다. 척추동물의 시각 기관인 눈구멍 안에 박혀 있는 공 모양의 기관인 「눈알」은 삼척사투리로 「눈까리」라고 하였다.<sup>185)</sup>

속눈썹의 뿌리에 균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붉어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인 「다래끼」는 삼척사투리로 「눈다래끼」, 「눈다래끼」, 「눈다락지」, 「눈다리끼」라고 다양하게 표현 하였다.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인 「머리」의 삼척사투리는 「대가리」, 「대가빠리」, 「골폐기」라고 표현하였다. 척추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인 「목」은 삼척사투리로 「모가지」, 「메가지」, 「모강지」라고 하였다. 발 뒤쪽의 등그런 부분 가운데 맨 뒤쪽의 두둑하게 나온 부분인 「발뒤축」의 삼척사투리는 「발뒤끄머리」 혹은 「발뒤꿈치」라고 표현하였다. 뺨의 한복판인 「볼」은 삼척사투리로 「볼태기」, 「뽕」, 「뽕주거니」, 「뽕태기」라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척추동물의 살 속에서 그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물질인 「뼈」는 삼척사투리로 「뽕」, 「뽕다구」, 「뽕다구」, 「뽕가지」라고 불렀다.<sup>186)</sup> 「뽕」에 대한 삼척사투리는 매우 다양하다. 삼척은 유목민족의 성격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인 「손가락」은 삼척사투리로 「손꾸락」 혹은 「손꼬락」이라고 하였다. 성숙한 남자의 입 주변이나 턱 또는 뺨에 나는 털인 「수염」의 삼척사투리는 「썸」 혹은 「구레나루」라고 하였다. 코의 등성이인 「콧등」은 삼척사투리로 「콧잔뎡이」, 「콧짜베기」, 「콧빠기」라고 하였다.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인 「여드름」의 삼척사투리는 「여드레미」, 「으드레미」, 「음달이」라고 표현하였다.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인 「이마」는 삼척사투리로 「이마빠기」, 「이바빠구」, 「맛빠구」라고 불렀다.<sup>187)</sup>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인 「정수리」는 삼척사투리로 「장배기」라고 하였다. 사람의 입 아래에 있는 뾰족하게 나온 부분인 「턱」의 삼척사투리는 「택」, 「택수가리」, 「택수바리」라고 표현하였다. 사람 등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인 「혀」의 삼척사투리는 「혜」, 「세」, 「셋바닥」이라고 불렀다. 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이」는 삼척사투리로 「이빨」, 「이빠리」라고 표현하였다.<sup>188)</sup> 큰창자와 작

184)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85)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86)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87)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88)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은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창자」의 삼척사투리는 「창지」, 「내장」, 「배창지」, 「뺨」이 있다. 「창자」는 삼척사투리로 화가 날 때, 「창지가 나서[성질나서, 화가 나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5) 오십천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사람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으로 여타지역에 비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지역 사람들의 각종 병에 대해서 1997년 삼척시청에서 편찬한 『삼척시지(三陟市誌)』 189) 제6편 제6절 방언(方言) 질병(疾病)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으로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픈 「감기」에 대한 삼척사투리는 「곱불」 혹은 「개좁베기」다. 피부의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인 「종기」의 삼척사투리는 「뺨둘가지」 혹은 「뺨지」라고 불렀다. 위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위장병」은 삼척사투리로 「속병」, 「속앓이」, 「가슴알이」라고 표현하였다. 개나 돼지에 생기는 병의 하나로 흔히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배가 붓고 발목이 굽으면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귀」의 삼척사투리는 「자구」 혹은 「짜구」라고 하였다. 고름 병원균 때문에 일어나는 가운데귀의 염증인 「중이염[가운데귀염]」은 삼척사투리로 「귀젓」이라고 표현하였다.<sup>190)</sup>

클라미디아로 일어나는 결막의 접촉 감염병인 「트라코마」는 삼척사투리로 「개씩바리」 혹은 「돌징눈」이라고 하였다. 「말라리아」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인 「고금」의 삼척사투리는 「초와」, 「하루거리」, 「학질」이라고 표현하였다. 피부에 나는 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부스럼」은 삼척사투리로 「부수럼」, 「부시레미」, 「흔데」, 「종기」, 「헌데」라고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변에 굽이 섞여 나오며 뒤가 짙은 증상을 보이는 법정 전염병으로 세균성과 원충성으로 구별하는 「이질」의 삼척사투리는 「이정배알」이라고 불렀다.<sup>191)</sup>

티푸스균이 창자에 들어가 일으키는 급성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는 삼척사투리로 「장질부사」, 「엠펙」, 「엔병」이라고 하였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으로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발진(發疹)이 생겨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굽으면 얽게 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사망률도 높으나 최근 예방 주사로 인해 연구용으로만 그 존재가 남아 있는 「천연두」의 경우 삼척사투리로 「큰손님」 혹은 「마마」라고 하였다. 「천연두」의 삼척사투리 「큰손님」은 동해안별신굿인 삼척오금잠굿 무가에도 등장한다.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으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하다. 기관지성, 심장성, 신경성, 요독성(尿毒性) 따위로 나누는 「천식」의 삼척사투리는 「해소병」, 「천축」, 「촌축」이라하였다.<sup>192)</sup>

## VII. 글을 나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삼척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삼척적인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글 제

189)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190)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91)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192) 三陟市廳, 『삼척시지(三陟市誌)』, 江原道 三陟市廳, 1997, 989쪽

목인 「삼척 오십천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쓰려는데, 자꾸만 삼척 사투리에 천착하게 되었다. 사투리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글을 쓰면서 이처럼 삼척사투리에 집착한 것은 삼척사투리를 통해서 만이 삼척 오십천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가장 큰 성과는 오십천을 비롯한 삼척사람들의 기질(氣質)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던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삼척들을 「쌈할시럽다」라는 사투리가 이 지역 사람들의 기질이 「드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는 대표적이었다. 이 「쌈할시럽다」가 고구려 고어 「쌈할시럽다」와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필자가 이 지역출신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 대목이었다. 가설적이긴 하지만, 「쌈할시럽다[쌈할시럽다]」는 고구려에서 바다를 건너가 일본의 무사 집단으로 표현되는 「쌈할아이[사무라이]」와 연결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 고통 속에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쌈할시럽다」가 이제는 삼척사람들이 「드세다」는 비속어로 생각하지 말고, 험난한 세상살이 속에서 삼척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질론(氣質論)으로 인식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일상의 촉박한 시간 속에서 선학들의 글을 많이 빌려온 것에 대해 그들에게 무한히 감사드린다. 앞으로 삼척 오십천 사람들의 삶과 지혜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하면서 이 글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자연인문 융합지식자원」으로 활용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원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허목, 『척주지(陟州誌)』

### <서적>

김도현 장동호 홍진표, 『3대강 꼭지점으로 떠나요』, 강원도민일보 태백시, 2013  
삼척군, 『三陟郡誌』, 삼척군, 1988,  
삼척시, 『三陟市誌』 제2편 지리, 江原道 三陟市廳, 1997  
서병국, 『대동이탐구』, 한국학술정보, 2010  
이경진 저,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藝文社, 2004  
이승철 외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강원도환동해본부, 2016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2000  
장정룡, 『삼척군지명유래지』, 삼척군, 1994  
전제훈, 『기후변화와 생명문화』, 강원도민일보, 2010  
전제훈, 『석회암과 삼척문화』, 삼척시립박물관, 2014  
차장섭 배제홍 김도현 홍영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 강원대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허목 저, 배제홍 옮김, 『국역척주지』, 삼척시립박물관, 2001

### <논문>

전제훈, 「한국고대신화의 Manatism적 조명」, 원광대학교 대학원 2013년 박사학위 논문